

이슈
보고서

2021
05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글로벌보험센터

머리말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규모의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보험산업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험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봉쇄에 따른 수많은 기업들의 폐업으로 대규모의 기업후지보험금 지급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 보험산업은 보험서비스의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 관리 그리고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주요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보험산업과 상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 의료환경이 다른 세계 주요국의 보험산업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주요국의 대응 사례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4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코로나19 피해 현황	2
1. 서론	2
2. 피해 현황 및 대응	2
3. 경제 피해 현황	9
4. 보험산업 영향	19
5. 보험상품 영향	37
II. 각국 정부 대응	53
1. 정부 대응	53
2. 소결	68
III. 각국 보험산업 대응	69
1. 총론	69
2. 미국	71
3. 영국	74
4. 독일	76
5. 일본	77
6. 중국	79
7. 대만	82
8. 호주	84
9. 싱가포르	86
10. 소결	88
• 참고문헌	89

표 차례

〈표 I-1〉 코로나19 피해 현황 추세	4
〈표 I-2〉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발생률	9
〈표 I-3〉 중국 GDP 성장률 변화 추이	15
〈표 I-4〉 대만 GDP 성장률 변화 추이	16
〈표 I-5〉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2020~2021년)	20
〈표 I-6〉 세계 상위 보험회사(수익 및 시장가치 기준)	23
〈표 I-7〉 미국 생명보험 예상 성장률	24
〈표 I-8〉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영업실적(2020년 9월 말)	29
〈표 I-9〉 일본 Top3 손해보험회사 연결기준 영업실적(2020년 9월 말)	31
〈표 I-10〉 영국 Hiscox 기업휴지보험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 사유 관련	39
〈표 I-11〉 프랑스 ACPR의 기업휴지보험 조사 결과	40
〈표 I-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최신 사이버 리스크	46
〈표 I-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산재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주 현황	47
〈표 I-14〉 산재보험의 신종 리스크	48
〈표 II-1〉 싱가포르 코로나19 피해 희생보조금 지원정책	67

그림 차례

<그림 I-1>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10
<그림 I-2> 주요국 2020년 2/4분기 실업률	10
<그림 I-3> 미국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11
<그림 I-4> 독일 실질 GDP 추이	13
<그림 I-5> 2020년 1/4분기 GDP 예측 오차	19
<그림 I-6> Lloyd's 연간 수익 및 손실	26
<그림 I-7> 중국 2017~2020년 월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추이	43

요약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였다. 누적 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은 2020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 하락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직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 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였다.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I

코로나19 피해 현황

1. 서론

-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규모의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 세계 각국 정부와 보험 산업은 다양한 정책과 대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본고는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 피해 현황과 각국의 정부 대응 및 보험산업 대응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또 다른 팬데믹 발생 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세계 각국의 의료체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 현황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세계 주요국 중에서 코로나 피해가 심한 나라, 심하지 않은 나라 등을 선정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함
 - 조사 대상 세계 주요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호주, 싱가포르임

2. 피해 현황 및 대응

가.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¹⁾

-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에는 상태를 범유행으로 격상시킴
- (전 세계)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임²⁾

1)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음

2) WHO Coronavirus Disease

- (미국) 2021년 1월 23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413,331명, 사망자 수는 406,782명으로 1.7%의 치사율을 보임³⁾
- (영국) 2021년 1월 23일 5:34pm 중앙 유럽 표준시(CET) 기준 영국 누적 확진자는 358만 3,911명, 누적 사망자는 9만 5,981명, 치사율은 2.68%임⁴⁾
- (독일) 2021년 1월 23일 5:34pm 중앙 유럽 표준시(CET) 기준 독일 누적 확진자는 212만 2,679명, 누적 사망자는 5만 1,521명, 치사율은 2.43%임
- (일본) 2021년 1월 23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6,074명, 사망자 4,935명, 치사율은 1.4%임⁶⁾
- (중국) 2021년 1월 23일까지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8만 8,991명, 사망자는 4,635명, 치사율은 5.2%임⁷⁾
- (대만) 2021년 1월 23일까지 대만 내 누적 확진자는 884명, 사망자는 7명, 치사율은 0.8%임⁸⁾
- (호주) 2021년 1월 23일 기준 총 검사자 12,681,350명, 누적 확진자 28,761명, 사망자 909명, 완치자 27,706명, 치사율은 3.2%를 보임⁹⁾
- (싱가포르) 2021년 1월 23일 12:00 기준 누적 확진자 수 59,260명, 사망자 29명, 감염자 216명, 완치자 59,015명, 치사율은 0.05%를 기록함¹⁰⁾

3) CDC(<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4) 동 시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9,785만 1,219명, 누적 사망자는 210만 1,849명, 치사율은 2.15%임

5) 동 시간 기준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3,283만 364명, 누적 사망자는 70만 4,691명, 치사율은 2.15%임

6) NHK(<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data-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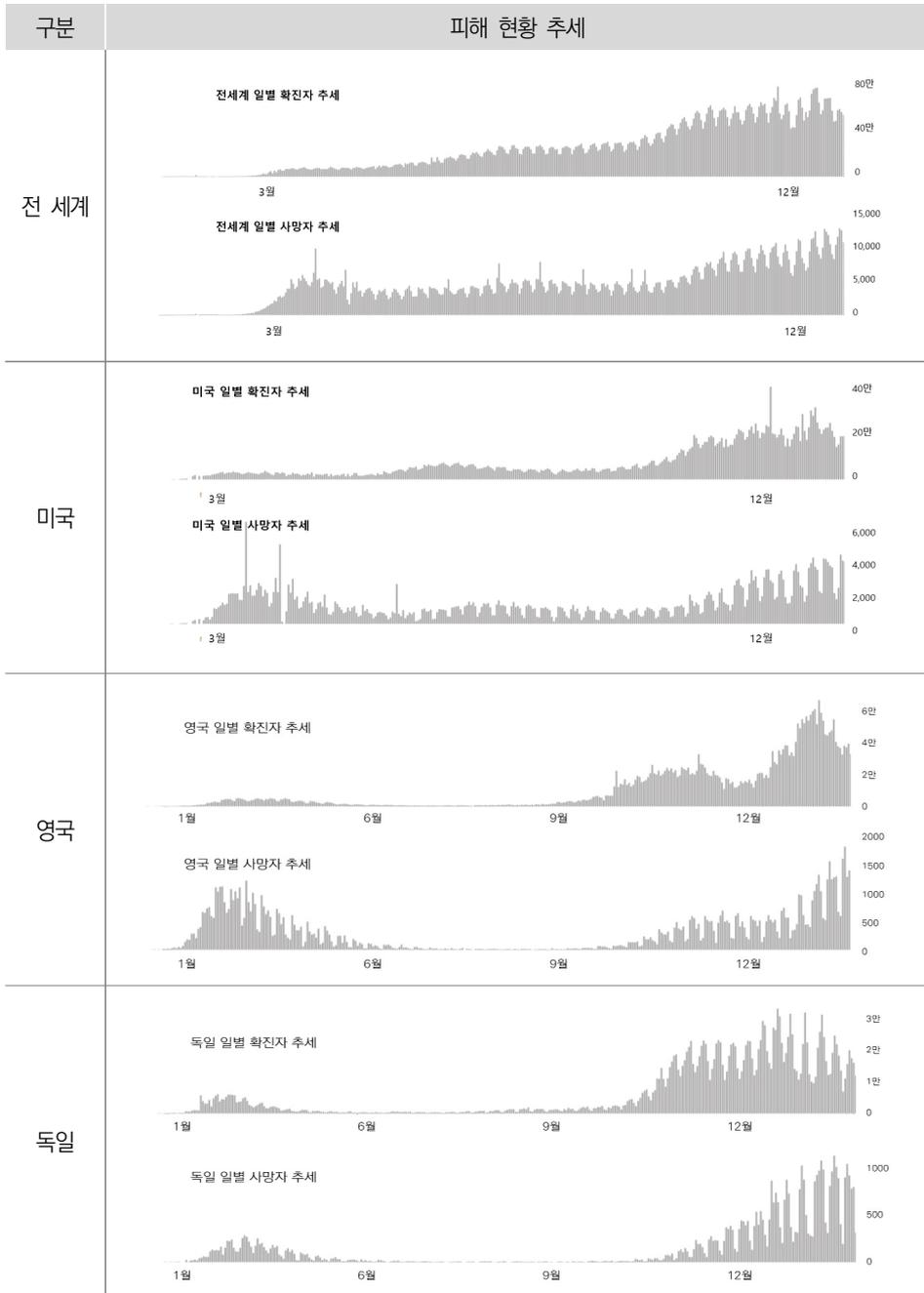
7) 中国政府网(2021. 1), “截至1月23日24时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最新情况”

8)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1. 1), “新增1例本土COVID-19病例, 為案881之同住家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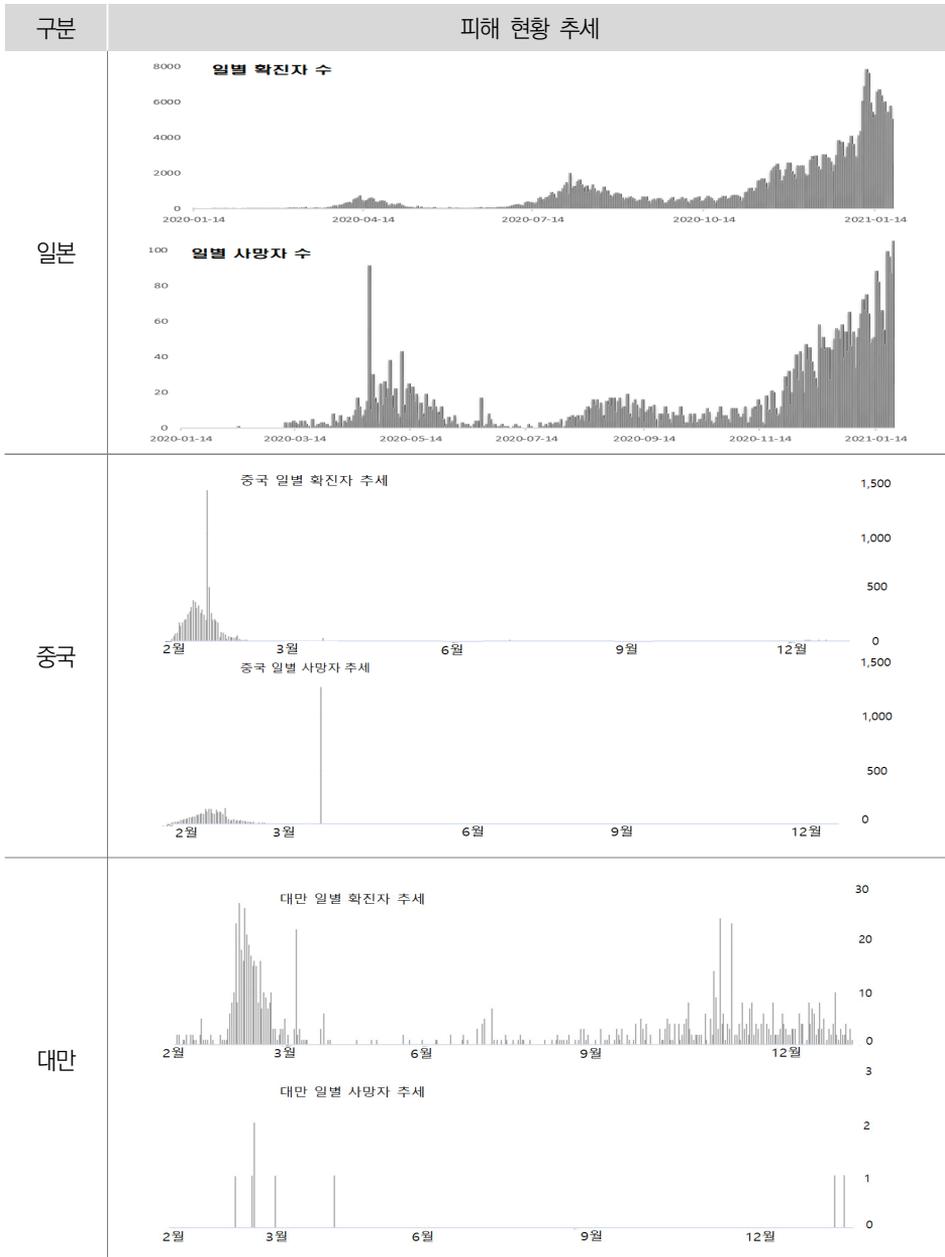
9)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1/01/coronavirus-covid-19-at-a-glance-23-january-2021.pdf>

10) https://www.moh.gov.sg/docs/librariesprovider5/local-situation-report/ceg-20210123_daily_report_on_covid-1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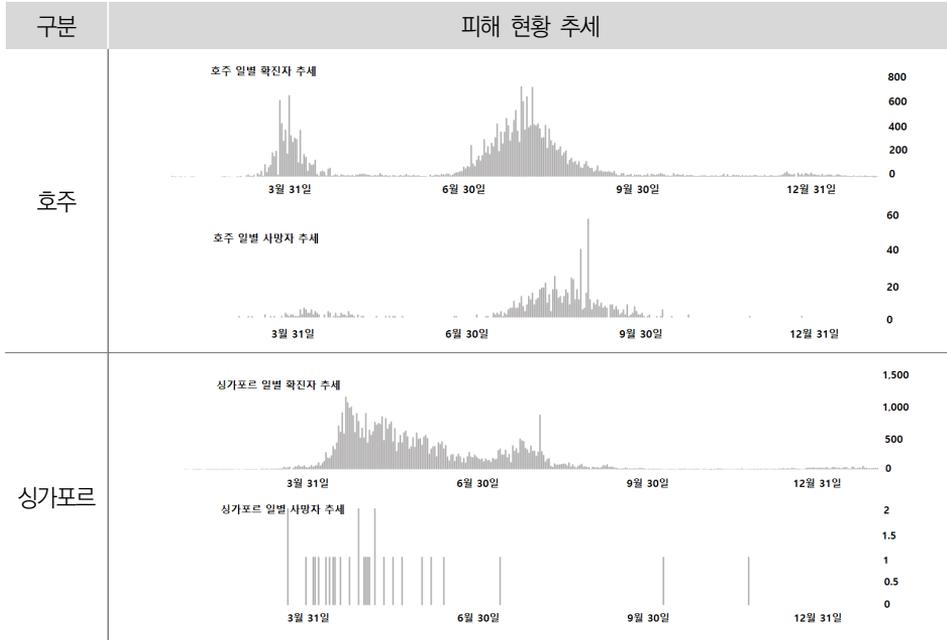
〈표 I-1〉 코로나19 피해 현황 추세



〈표 I-1〉 계속



〈표 I-1〉 계속



주: 1) 2021년 1월 23일 5:34pm 기준임

2) 중국과 대만은 통계사이트 월드미터(worldometer)를 활용함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나. 국가별 대응

○ (미국)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본토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2020년 1월 21일 확인함

-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정부는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행위 및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미국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함
- 2020년 3월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500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였으나, 비상사태 선포 후 2주 만에 미국은 전 세계 최다 확진자, 사망자를 기록함
- 2020년 12월 11일 미 식품의약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12일에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ICP)도 백신 접종에 필요한 사용 권고 결정을 내림

- (영국) 2020년 3월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리를 기록하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1월 9일 68,053명으로 하루 최고치를 기록함
 - 2020년 3월 7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4월 일 평균 사망자 수가 약 800명을 기록하며 사망자 수가 증가함
 - 영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단계를 4단계(Tier)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별로 단계를 지정하여 지침을 따르도록 함¹¹⁾
- (독일) 2020년 1월 28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 33,777명으로 하루 최고치를 기록함
 - 2020년 3월 10일 처음으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으며, 4월 일 평균 사망자 수가 약 190명으로 치사율이 높지 않았으나 2020년 겨울부터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 수상 및 총리 간 화상회의를 통해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폐쇄 조치 및 새로운 대응 조치를 실시함¹²⁾
 - 2021년 1월 11일 독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더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고 2월 말까지 해당 조치를 연장할 계획임¹³⁾
- (일본) 2020년 2월 초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코로나19가 확산됨
 -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 지연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긴급사태 완화, 해제를 반복하면서 2020년 4월, 7월, 2021년 1월에 걸쳐 대유행을 경험하는 등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음
 - 일본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는 2021년 1월부터 최대치를 갱신하여 1월 23일 기준 1,009명을 기록함에 따라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이 계속됨
- (중국)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도시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미국 및 유럽 주요국에 비해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은 편임
 - 2020년 1월 20일 중국 중앙정부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채택했던 방식대로 코

11) <https://www.gov.uk/coronavirus>

12) bundesregierung(2020. 11. 25),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Federal Chancellor and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13) Bloomberg(2021. 2. 6), "German Lockdown Likely to Be Extended Until End of February"

로나19를 ‘을류’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갑류’ 법정감염병 수준의 대응 조치를 결정함¹⁴⁾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은 크게 2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 확산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2020년 3월 중순에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며 2차 확산은 2021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해 2월 초에 진정세를 보였음
- (대만)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1일에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그 이후 대만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덕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되는 2020년 2월 5일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함¹⁵⁾
- (호주) 호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3~4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5~6월 줄어들었고 이후 7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8월에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임
 - 호주 정부는 2020년 2~3월 해외여행자의 호주 입국을 통제하고 7~8월 락다운을 강화하여 시행함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별 확진자 수는 2020년 4~7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2021년 1월 현재 10~50명 내외 수준임
 -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2~3월 해외여행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통제하고 4월 시행된 서킷브레이크를 6월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함

다. 소결

- 주요국은 2020년 연초에 1차 파동이 발생한 이후 여름동안 발생자 수가 감소하다가 겨울에 다시 확산되면서 2차, 3차 파동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추어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
- 누적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임

14) 中国政府网(2020.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公告”

15)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2), “2月6日起全中國大陸(含港澳)列二級以上流行地區, 居住中國大陸各省市陸人暫緩入境”

- 10만 명당 발생률은 미국이 7,348명, 중국이 6명인 반면 치사율의 경우 미국은 1.70%, 중국은 5.20%로 나타남

〈표 I-2〉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발생률

(단위: 백만 명, 명)

구분	인구(백만 명)	누적 확진자 수	발생률(10만 명당)
미국	332.3	24,413,331	7,348
영국	67.9	3,583,911	5,279
독일	83.8	2,122,679	2,534
일본	126.5	356,074	282
중국	1,442.9	88,991	6
대만	23.8	884	4
호주	25.5	28,761	113
싱가포르	5.8	59,260	1,013
한국	41.3	75,084	182

주: 2021년 1월 23일 기준임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Worldometer, Countries in the world by population

3. 경제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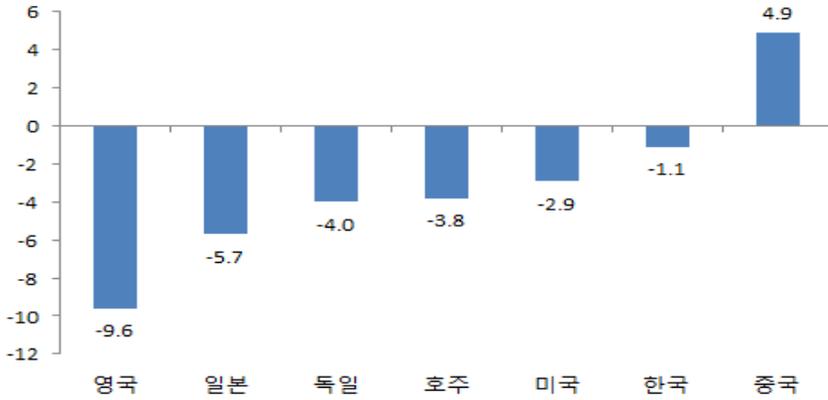
가. 전 세계

○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2020년 3/4분기 GDP 증가율이 2/4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2020년 2/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그림 I-1〉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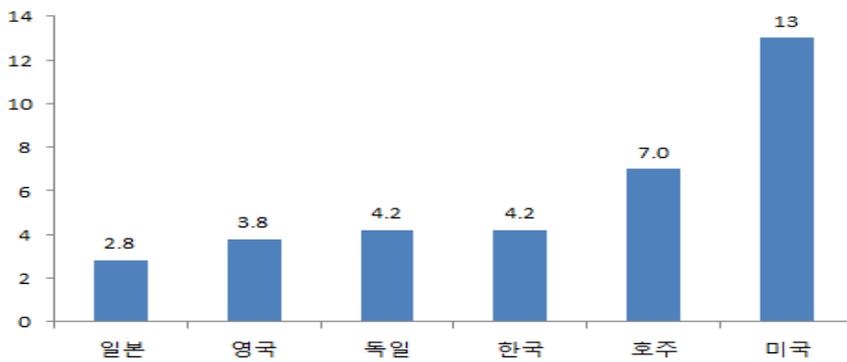
자료: OECD Data Warehouse(2020년 3/4분기)

○ 주요국 노동시장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함

- 일부 국가에서 2020년 3/4분기 실업률의 개선을 보이고는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림 I-2〉 주요국 2020년 2/4분기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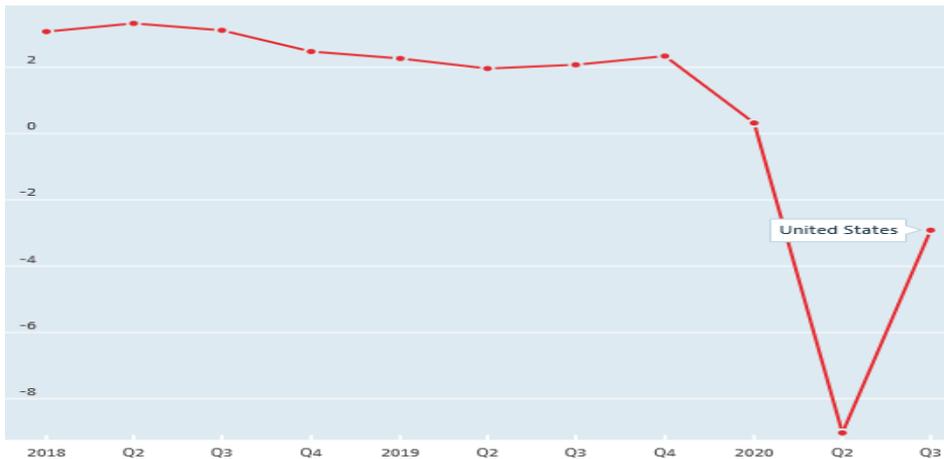
자료: OECD(2020년 2/4분기)

나. 미국

- 미국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GDP 증가율이 -9.8%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 GDP 증가율이 -2.9%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반등하였음
 - 2020년 1/4분기 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하며 2%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2019년에 비해 GDP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4분기에는 팬데믹의 영향 심화로 하락폭이 확대됨

〈그림 I-3〉 미국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단위: %)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미국의 노동시장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실업률이 14.7%로 정점을 찍었으나, 9월에는 7.9%를 기록하며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다. 영국

- 2020년 9월 pwc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5.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¹⁶⁾
 - 분기별 성장률은 7월 6.3%, 8월 2.2%, 9월 1.1%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9월

16) pwc(2020. 9), "UK Economic Update"

기준 생산력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8.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경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 락다운 조치로 인해 11월 경제 성장률은 전월 대비 5.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백신의 출시 여부와 경제적 영향, EU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음
- 영국 예산책임처(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2022년 4/4분기까지 생산력의 회복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함¹⁷⁾

○ 2020년 영국의 실업률은 4.8%이며, 2021년 7.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¹⁸⁾

- 2020년 9월 기준 181,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으며 7~9월 실업률은 4.8%로,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음¹⁹⁾

라. 독일²⁰⁾

○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독일 GDP는 전분기 대비 8.5%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4.0% 하락하였음²¹⁾

- 독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에는 4.4%, 이후 2025년까지 5년간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²²⁾ 연말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며 전망이 불분명해짐

17) OBR(2020. 11. 25),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0"

18) OBR(2020. 11. 25),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0"

19) pwc(2020. 9), "UK Economic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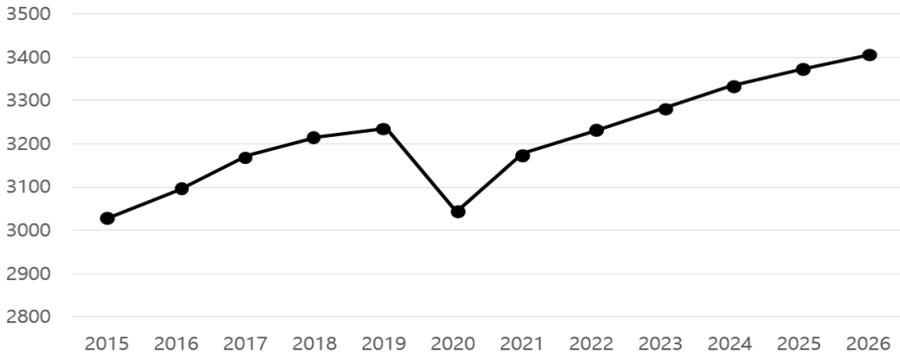
2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21) Statistisches Bundesamt(2020. 11. 24), "Gross domestic product: detailed result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3rd quarter of 2020"

22)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그림 I-4〉 독일 실질 GDP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0년 12월 락다운 조치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함
 - 특히 2020년 상반기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단축근무 지원 정책에 따라 하반기 경제 상황 및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냄
- 순 월 가계 소득은 2020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에는 0.8% 증가, 이후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마. 일본

- 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기업 종업원 수가 6.5%(234만 명) 감소하고 전 산업의 총매출은 17.7% 감소, 영업이익은 6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²³⁾
 - 기업의 휴업 및 폐업 신청(1~8월)은 약 3만 5,000건으로 2019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해 과거 최대치를 갱신함
- 그러나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2020년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4분기 5%(연율 21.4%)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1990년대 이후 사상 최대 성장률을 기록함²⁴⁾

23) 東洋經濟(2020. 9. 13), 令和2年4~6月企業統計調査

24) 日本經濟新聞(2020. 11. 16), GDP7~9月年率 21.4%増

- 주요 요인은 소비세율 인상(2019. 10), 코로나19로 인한 이전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가계소비 및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임
- 이에 반해, 2021년도 기업 신입 대졸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의 해고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음
 - 닛케이신문의 2021년도 채용상황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대졸채용 내정자 수(2021년 봄 입사자)가 전년도에 비해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²⁵⁾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한 해고 건수가 2020년 1월부터 11월 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처음으로 7만 명(70,242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²⁶⁾
 - 2018년 이후 2%대를 유지하던 명목 실업률도 7월에 2.9%(실질 6.2%)를 기록함

바. 중국

- 2020년 1/4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6.8%까지 하락함²⁷⁾
 - 중국 국가정보센터 추바오량(祝宝良) 수석경제학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1/4분기 경제적 손실 규모가 3조 위안에 달했다고 추정함²⁸⁾
- 다만 중국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및 정부의 경제정상화 조치로 2/4분기부터 3/4분기 연속 플러스 수치를 기록함²⁹⁾
 - 코로나19 상황이 강력한 도시봉쇄조치로 2월 하순부터 안정화되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함³⁰⁾
 - 6월 16일까지 베이징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정부들은 모두 코로나19 대응등급을 3급 이하까지 하향 조정함³¹⁾

25) 日本經濟新聞(2020. 10. 19), 大卒内定者11%減

26) 日本經濟新聞(2020. 11. 9), コロナ関連解雇7万人超え

27) 中国国家统计局(2020. 4), “2020年一季度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28) 中国经济体制改革研究会(2020. 4), “智库专家：一季度中国经济损失约3万亿元”

29) 中国国家统计局(2021. 1), “2020年四季度和全年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30) 健康时报(2020. 4), “全国调整应急响应级别，这四个省为何还是一级响应？”

31) 新京报(2020. 6), “北京升级，成为全国唯一的二级响应地区”

- 2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정상화를 위해 지역에 따라 대응 수준을 나눠 단계적으로 기업의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시함³²⁾
 - 4월 7일 중국 정부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등급별 기업 조업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³³⁾

〈표 I-3〉 중국 GDP 성장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8	6.9	6.9	6.7	6.5
2019	6.4	6.2	6.0	6.0
2020	-6.8	3.2	4.9	6.5

주: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계산됨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 9월 도시 실업률은 5.4%로 8월(5.2%)보다 0.2%p 하락함
 - 1~9월 신규일자리 수는 898만 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설정한 신규일자리 수의 99.8%에 상당한 수치임

사. 대만

- 2020년 1/4분기 대만 GDP 성장률은 양호한 생산 및 수출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³⁴⁾
 - 대만 정부의 효과적인 초기 방역 대응으로 도시봉쇄, 사람 이동제한,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대만 GDP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4분기에 -0.7%까지 하락했지만 3/4분기부터 2/4분기 연속 플러스 수치를 기록함³⁵⁾

32) 新华网(2020. 2), “习近平：在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上的讲话”

33) 中国政府网(2020. 4), “全国不同风险地区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

34) 台湾行政院主计总处(2020. 5), “109年第1季经济成长率1.59%”

- 2/4분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 및 국내 소비 위축은 GDP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임³⁶⁾
 - 2/4분기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입국자 수가 급감하면서 소매, 외식, 숙박 및 교통을 비롯한 산업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음
- 3/4분기와 4/4분기 해외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정책은 GDP 성장률 개선의 주요 원인임³⁷⁾

〈표 I-4〉 대만 GDP 성장률 변화 추이¹⁾

(단위: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8	3.41	3.42	2.29	2.12
2019	1.88	2.87	3.33	3.69
2020	2.51	0.35	3.92	4.94

주: 대만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계산됨
 자료: 台灣行政院主計總處

- 실업률은 2020년 1월 3.64%에서 5월 4.07%까지 상승했지만 9월 3.84%로 하락해 소폭 개선됨³⁸⁾
 - 2020년 5월 실업률은 2019년 5월(3.67%)보다 높지만 2020년 9월 실업률은 2019년 9월(3.8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아. 호주

- 2019년 9월~2020년 9월 GDP는 -3.8% 성장하였으나 2020년 3/4분기는 전분기 대비 3.3% 상승하며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임³⁹⁾

35) 台灣行政院主計總處(2020. 7), “概估109年第2季經濟成長率-0.73%”; 台灣行政院主計總處(2020. 11), “109年第3季經濟成長率3.92%”; 台灣行政院主計總處(2021. 1), “109年第4季經濟成長率概估計數為7.77%, yoy為4.94%, 全年成長2.98%”

36) 中央通訊社(2020. 7), “第2季GDP成長負0.73% 金融海嘯以來最差”

37) 中央通訊社(2020. 11), “保2達陣主計總處大幅上修109年成長率預測至2.54%”; 理財網(2021. 2), “主計處: 109年第4季經濟成長率概估計為4.94%”

38) 台灣行政院主計總處(2020. 10), “109年9月失業率為3.83%”

39)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latest-release>

- 2019년 9월~2020년 9월 1인당 GDP는 -4.7%,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은⁴⁰⁾ -3.5%로 감소함
 -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영업 중단과 급격한 가계 지출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함
 - 2020년 3/4분기 GDP는 3월 시작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로 가계 소비의 7.9% 증가에 힘입어 2/4분기 대비 3.3% 증가함
 - 2/4분기 GDP 성장률 -7%는 호주 국가경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음
- 호주 2020년 10월 실업률은 7.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11월과 12월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임
- 월별 실업률은 5.2%(3월), 6.4%(4월), 7.1%(5월), 7.4%(6월), 7.5%(7월), 6.8%(8월), 6.9%(9월), 7.9%(10월), 6.8%(11월), 6.6%(12월) 추이를 보임⁴¹⁾
 - 최근 9년간(2011~2019년) 평균 실업률은 5.2% 수준임

자.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조기 예측자료에 따르면 2020년 GDP는 전년 대비 -5.8% 성장하였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 점차 회복되는 양상임⁴²⁾
- 2020년 GDP는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33.7%, 도소매무역/운반/저장(보관)과 숙박/음식·부동산서비스/기타서비스업이 각각 -11.2%, -12.6%를 기록하여 높은 감소치를 보임
 -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2020년 2/4분기에 가장 낮은 수치(-13.3%)를 기록했으나 3/4분기(9.5%)와 4/4분기(2.1%)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임
 - 싱가포르는 2020년 4월 1일에서 6월 1일 서킷브레이크(부분 락다운)를 시행한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함

40)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41)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latest-release>

42)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news/advgdp4q2020.pdf>

- 2020년 싱가포르 통합실업률은 3.0%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으나 2020년 4/4분기 들어 소폭 하향함⁴³⁾
 - 싱가포르의 최근 10년간 통합실업률 평균치는 2.07%임
 - 싱가포르 통합실업률은 1/4분기 2.4%, 2/4분기 2.8%, 3/4분기 3.6%, 4/4분기 3.2%를 기록하여 3/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분기에 완화됨
 - 싱가포르 시민권자(Citizen)와 영주권자(Resident)의 실업률은 3/4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다소 완화되는 양상임

차.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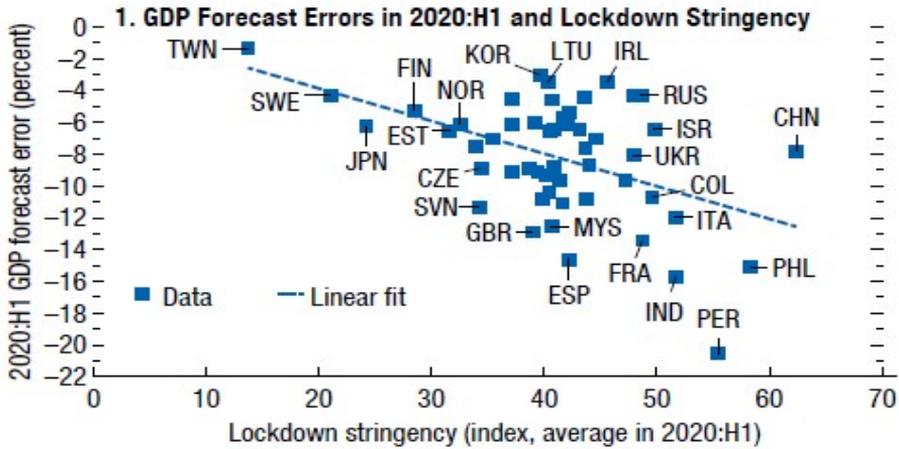
- 주요국 대부분이 2020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이 하락한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GDP 증가율이 1/4분기 급락한 이후 2/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함
 -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과 대만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취한 봉쇄조치가 강력할수록 GDP 감소는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 투자, 산업생산, 소매판매, 제조 및 서비스, 그리고 실업률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⁴⁴⁾

43) <https://stats.mom.gov.sg/Pages/Unemployment-Summary-Table.aspx>

44) IMF(2020. 10),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그림 I-5〉 2020년 1/4분기 GDP 예측 오차

(단위: %)



자료: IMF(2020. 10)

4. 보험산업 영향

가. 세계 시장 전망⁴⁵⁾

- 코로나19로 2020년 글로벌 GDP가 약 4% 감소하고 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며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됨
 - 2020년 글로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6%, 손해보험의 경우 0.1%로 전망됨
 - 2020년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높은 GDP 축소를 보이나,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디폴트 증가로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저금리로 투자이익이 낮게 유지되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영향이 가해질 전망이다
- 2021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45) Swiss Re(2020. 7. 9), "World insurance: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 No 4/2020

- 2021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하여 글로벌 총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생명보험의 성장은 위축되고 손해보험의 경우 이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신흥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가 회복의 주요 원동력이 됨
- 2020~2021년 글로벌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생명보험 -2%, 손해보험 2%로 전망됨
 - 특히 선진국 생명보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3% 성장)
 -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여 개인·단체 저축과 관련한 생명보험 수요가 감소함
 - 락다운 조치로 대면 영업이 제한되고 생명보험 판매가 감소하여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의 손해보험 부문에 대한 영향은 생명보험 대비 낮은 편으로, 특히 신흥국에서 높은 성장률 반등(5%)이 예상됨
 - 실제로 신흥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I-5〉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2020~2021년)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2020E	2021F	20-21F	2020E	2021F	20-21F	2020E	2021F	20-21F
선진국	-8	2	-3	-1	3	1	-4	2	-1
신흥국	0	7	3	3	7	5	1	7	4
글로벌	-6	3	-2	0	3	2	-3	3	0

자료: Swiss Re(2020. 7. 9), "World insurance: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 No 4/2020

- 코로나19로 보험회사 이익에 일시적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가 실적 쇼크를 흡수하고 기존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말 글로벌 총 수입보험료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인 3% 성장률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의 경우 글로벌 실질 수입보험료가 약 3% 증가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손해보험 부문의 최종적인 보험금 청구액은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출처의 추정치는 약 550억 달러로, 이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발생 손실액 합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약 900억 달러⁴⁶⁾의 손실을 입혔고 이를 보험업계가 흡수한 바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료 상승,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이익을 유지할 전망이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이 손해보험에서 요율 경성화가 발생하던 시기로 이러한 트렌드는 기업보험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보험 수요가 회복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건강 리스크와 경제 문제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보험의 여러 상품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팬데믹 솔루션과 같은 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 중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며, 재산보험, 기술보험, 보증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보험료 기준 글로벌 상위 보험회사 가운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2020년 수입보험료, 총자산, 순이익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심각한 순이익 감소가 나타남⁴⁷⁾

- United Health의 경우 드물게 긍정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연도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은 10.75% 상승하였음
 -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9%의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으나 2/4분기 및 3/4분기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타 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의 감소가 크지 않음
 - 병원 등 의료기관이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함에 따라 비응급 시술과 선택치료 등이 지연되어 수익이 증가함

46) 2019년 가격 기준임

47) 각 보험회사별 재무보고서를 참고함

- 상당수 보험회사들의 경우 특히 1/4분기 또는 2/4분기에 순이익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3/4분기에서도 순이익의 마이너스가 나타나 2020년도 수익성은 부정적 전망이 예상됨

- Berkshire Hathaway는 2020년 1/4분기 328.68%, 2/4분기 164.87%, 3/4분기 86.45%의 순이익 감소가 나타남
- Metlife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순이익은 긍정적이었으나, 2/4분기에 91.41%, 3/4분기에 67.63% 감소하였음
- 미국 외 기타 국가 보험회사의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을 살펴 보면 Ping An은 42.74%, Allianz는 27.69%, Generali는 81.66% 하락하였으며, AXA의 경우에도 2020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38.75% 하락하였음

○ 순이익의 감소와 달리 수입보험료 및 총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총 자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많았음

- Metlife, Prudential, Ping An, AXA 등의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가 나타났으나, 수입보험료 규모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Berkshire Hathaway는 2020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7%, 4.24%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나타났으며, 총 자산은 2/4분기에 3.10%, 3/4분기에 3.28% 감소하였음
- Metlife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분기에 13.75%, 3/4분기에 7.86% 감소하였으며, Prudential의 경우 1/4분기 2.48%, 2/4분기 9.48%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나타났으나 3/4분기에 5.15% 증가하여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음
- Ping An의 경우 2020년 1/4분기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99% 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하여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음
- AXA의 경우 2020년 2/4분기까지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타 유럽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 수준이 전년 대비 유사한 것을 볼 때 2020년 전체 수입보험료 수준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보험료 및 자산 기준 세계 상위 보험회사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으나, 2020년 각 보험회사별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순위에 큰 변동이 예상됨

〈표 I-6〉 세계 상위 보험회사(수익 및 시장가치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순위	회사명	국가	수익	이익	자산	시장가치
4	Berkshire Hathaway	미국	254.6	81.4	817.7	455.4
7	Ping An Insurance	중국	155.0	18.8	1218.6	187.2
24	United Health	미국	246.3	13.8	189.1	277.1
25	Allianz	독일	122.4	8.9	1183.5	77.1
37	China Life Insurance	중국	103.7	8.5	536.2	60.3
40	CVS Health	미국	256.8	6.6	224.3	80.4
64	AXA	프랑스	150.0	4.0	850.8	42.3
72	Japan Post	일본	112.3	4.7	2680.2	32.7
76	Zurich Insurance	스위스	71.8	4.1	381.9	47.4
80	MetLife	미국	69.0	5.9	746.3	32.8

자료: Forbes(2020. 5. 13), "GLOBAL 2000"

나. 미국

-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2020년 상반기 판매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이후에는 일부 상품(종신, 정기보험)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LIMRA는 2020년 미국 생명보험 시장 전체의 연납화 보험료가 2019년 대비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감소분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함⁴⁸⁾
- 종신보험은 직판채널의 성장으로 2020년 상반기 손실이 2020년 중 다소 회복할 것이며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재정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는 소액보험의 판매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험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48) LIMRA(2020),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Annualized Premium Growth Forecast"

〈표 I-7〉 미국 생명보험 예상 성장률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고정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인덱스유니버설	정기	종신	합계
2019	3	33	9	1	0	5
2020(예측치)	-25~-21	-12~-8	-7~-3	3~7	-3~1	-7~-3
2021(예측치)	-12~-8	-5~-1	0~4	0~4	-4~0	-3~1
2022(예측치)	-5~-1	0~4	3~7	-2~2	1~5	0~4

주: 연납화보험료 기준임

자료: LIMRA

-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락다운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⁴⁹⁾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2020년 상반기 보유보험료(Net Written Premiums)는 2.8% 증가 하였으나 이는 2019년 상반기 1.0%의 이례적인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후 순이익의 급감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2019년 상반기 8.5%에서 2020년 상반기 5.8%로 크게 감소함
 - 손해보험회사들의 세후 순이익은 2019년 상반기 328억 달러에서 2020년 상반기 243억 달러로 급감함

다. 영국

- 2020년 영국 보험산업 실적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산업 모두 부정적임
 - 생명보험의 2020년 1/4분기 신규보험료는 34조 1,5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성장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 크게 하락하여 2020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⁵⁰⁾
 -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2/4분기에 25조 3,820억 달러, 3/4분기에 6조 3,844억 달

49)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20"

50) <https://www.abi.org.uk/data-and-resources/industry-data/industry-data-and-subscriptions/>

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5%, 86.3%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벤트 취소 보험, 여행 보험, 기업휴지보험⁵¹⁾ 관련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⁵²⁾
- 생명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하였으며, 금리 하락 및 신용 위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⁵³⁾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2020년 초 보험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생명보험회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함
-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영국 대법원 판결⁵⁴⁾이 선포됨에 따라 대상 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여행보험과 이벤트 취소 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손실이 예상됨
 -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휴지보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 한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막대한 기간에 따라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음
 -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Lloyd's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⁵⁵⁾ 영국 보험회사들은 17억 파운드(약 23억 2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⁵⁶⁾
 - ABI에 따르면 영국 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보험 관련 9억 파운드, 여행보험 관련 2억 7,500만 파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Lloyd's Group은 이벤트 취소 보험과 관련하여 5억 파운드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51) 사업중단보험이라고도 함

52) Victoria Luttig(2020. 12. 17), "EY UK (Re)Insurance 2021 Outlook", EY

53) Deloitte(2020), "Market implications of COVID-19 for UK life insurers"

54) FCA(2021. 1. 15), "Supreme Court judgment in FCA's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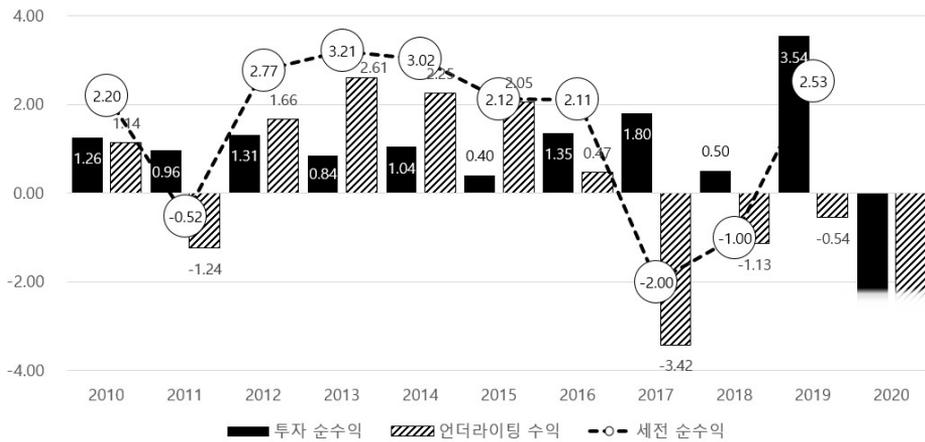
55) Intetics(2020. 10. 27), "COVID-19 impact on the UK insurance industry: how to keep your insurance business going"

56) ABI(2020. 7), "Helping customers, citizens and charities-Insurer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 Lloyd's는 2011년 뉴질랜드 및 일본, 2017년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외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긍정적이었음
- 그러나 2020년에 저금리로 인하여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투자와 언더라이팅 모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2020년을 역사상 보험금 청구액이 가장 많은 해일 것으로 전망함

〈그림 I-6〉 Lloyd's 연간 수익 및 손실

(단위: 10억 파운드)



자료: S&P Global(2020. 4. 6), "Lloyd's of London improvement continues steadily under shadow of coronavirus"

-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보험회사들의 운영 방안 수정이 예상되며,⁵⁷⁾ 디지털 혁신을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InsurTech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⁵⁸⁾

57) Sam Barrett(2020. 12. 16), "Insurance Outlook: 2021", The Journal

58) Intetics(2020. 10. 27), "COVID-19 impact on the UK insurance industry: how to keep your insurance business going"

라. 독일

- 2020년 독일 보험회사들의 전체 보험료 수입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⁵⁹⁾
 -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7% 대비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함
- 2020년 독일 생명보험 중 연금 수익은 전년 대비 0.4% 하락한 1,030억 유로이며, 정기 납 보험료는 1.0% 감소한 644억 유로, 일시납 보험료는 0.4% 증가한 383억 유로임⁶⁰⁾
 - 보험료 하락폭은 크지 않으나,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활동 둔화,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원인으로 개인보험 신규계약의 90%를 차지하는 대면 판매채널이 큰 영향을 받음⁶¹⁾
-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수익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수익률로 인해 2020년 이후 투자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⁶²⁾⁶³⁾
 - 독일보험협회(GDV: German Insur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4억 유로로 2.1% 증가(2019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두 번의 락다운 조치로 인해 기업휴지보험 및 이벤트 취소 보험 관련 손실이 많았으나, 자동차 사고 및 레저 활동에서의 사고가 감소하고 운송 관련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였음
 -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25억 유로로 추정되어 장기 평균 손실액인 37억 유로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2021년 독일 생명보험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장 변동성 증가⁶⁴⁾⁶⁵⁾ 및 저금리의 영향에 따라⁶⁶⁾ 전망이 부정적임

59) Reuters(2020. 11. 27), "German insurance premium income seen up 0.4% in 2020 - GDV"

60) GDV(2021. 1. 20), "Ver-si-che-rer bli-cken „vor-sich-tig opti-mis-tisch nach vorn" - Mit leich-tem Wachs-tum 2020 „sehr zufried-en"

61) Moody's(2020. 11. 3), "Moody's - Outlook for German life insurers is negative, as weak economic growth and low rates to have a lasting impact"

62) Moody's(2020. 11. 3), "Moody's - Outlook for German life insurers is negative, as weak economic growth and low rates to have a lasting impact"

63) GDV(2021. 1. 20), "Ver-si-che-rer bli-cken „vor-sich-tig opti-mis-tisch nach vorn" - Mit leich-tem Wachs-tum 2020 „sehr zufried-en"

64) Fitch Ratings(2021. 1. 29), "German Life Insurance Dashboard: 2021 Outlook"

65) Fitch Ratings(2021. 2. 2), "German Non-Life Insurance Dashboard: 2021 Outlook"

66) Moody's(2020. 11. 3), "Moody's - Outlook for German life insurers is negative, as weak economic

- 코로나19는 생명보험산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저금리 환경 또한 악영향을 미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⁶⁷⁾
 - 2020년 건강보험의 총 청구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을 뿐이나, 일부 보험금 청구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있어 향후 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 수익률 확보가 핵심 과제인데, 저금리 현상은 Solvency II에 따른 자본요구 및 투자수익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생명보험과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어 2021년 독일 손해보험 산업은 보험료 수익의 성장과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본 적정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⁶⁸⁾⁶⁹⁾

- 독일의 손해보험 산업은 상업보험 시장의 강세 및 건물보험 성장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3%, 2021년에는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자연재해로 인한 평균적인 보험금 청구 수준을 가정하면 2021년 시장 전반의 합산비율은 94%로 언더라이팅 수익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상업보험 및 건물보험의 보험료 성장이 기대되지만 2020년 언더라이팅 수익 경쟁 및 새로운 사업의 성장이 더딜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보험에서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락다운 조치로 2020년 1/4분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였으며, 2020년 자동차보험의 순합산비율은 95%(2019년 98.8%)임

마. 일본

○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신계약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14개사)가 발표한 2020년 9월 말(4~9월) 개인보험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5,000억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함

growth and low rates to have a lasting impact”

67) Fitch Ratings(2021. 1. 27), “What’s Ahead for European Health Insurance: Germany”

68) Fitch Ratings(2020. 11. 26), “Fitch Ratings Maintains Stable German Non-Life Insurance Sector Outlook”

69) Moody’s(2020. 11. 3), “Moody’s – Outlook for German life insurers is negative, as weak economic growth and low rates to have a lasting impact”

- 특히, 시장점유율 Top5를 차지하는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칸포생명⁷⁰⁾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표 I-8>과 같이 각각 44%, 53%, 89%를 기록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신계약 실적 악화를 주도하고 있음

<표 I-8>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영업실적(2020년 9월 말)

(단위: 억 엔, %)

회사명	신계약 수입보험료		기초이익		회사명	신계약 수입보험료		기초이익	
	금액	증가율 ¹⁾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니혼	1,148	-44	3,419	-5	SONY	287	-26	688	20
다이이치	529	-53	2,865	7	AFLAC	205	-44	1694	1
T&D HD	484	1	771	-10	토쿄안심	184	n.d.	333	56
MS&AD	474	-28	255	흑자 전환	칸포	150	-89	2,265	10
스미토모	468	-25	1,965	-3	히마와리	113	-6	192	20
메이지 야스다	409	-19	3,129	1	아사히	110	-8	215	49
Metlife	302	-42	769	3	후코쿠	76	-27	364	-5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가집계 실적임

자료: 日本經濟新聞(2020. 11. 24), 生保14社, 4~9月期の新契約42%減収

- 다만, T&D HD, 히마와리생명, 아사히생명 등은 2019년에 신계약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모면함

○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실적 감소는 정부의 코로나19 경제활동 자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대면영업을 자제하였기 때문임

- 특히,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과 그룹 자회사 등은 대면영업 자제에 참여한 보험설계사에게 영업보상을 종전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다른 생명보험회사들도 유사한 영업보상을 실시하여 대면영업을 큰 폭으로 축소하였음

70) 민영화된 우체국생명의 회사명임

- 주요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익 규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의 합산 순이익이 해외 영업실적 악화와 국내 보험금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시장점유율 Top4⁷¹⁾의 해외 자회사 순이익 합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763억 엔으로 가집계됨
 - 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증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20년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산운용이익 개선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국내시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손해보험협회(2020. 12. 15)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4~9월) 전체 28개사 국내시장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4조 3,906억 엔을 시현함⁷²⁾
 - 주요 원인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요율 개정에 따른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수입 감소와 해외여행 자제에 따른 상해보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감소율은 생명보험회사(14개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침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2020년 2/4분기 지급보험금과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됨
 - 지급보험금은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지급 보험금 지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2조 1,714억 엔 규모임
 - 업계 전체 평균 손해율은 지급보험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54.8% 수준임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2020년도 이익은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지급보험금 지출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2020년 2/4분기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됨
 - 그러나, 해외시장에 판매한 기업휴지보험 및 흥행중지보험의 경우 현재 미국 등에서 대규모 보험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보험금 청구가

71)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다이이치생명임

72) 日本損害保険協会(2020. 12. 15), 令和2年9月中間期 損保決算概況について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일본 국내시장의 경우 자동차 운행 자제와 자동차 사고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 빅3 손해보험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해외보험회사 실적 악화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도쿄해상 HD, MS&AD HD,⁷³⁾ SOMPO HD의 2020년 9월 말 연결기준 3개사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1,986억 엔 규모로 나타남
 - 주요 원인은 해외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 3개사 지급보험금 합이 1,420억 엔에 달하기 때문임

〈표 I-9〉 일본 Top3 손해보험회사 연결기준 영업실적(2020년 9월 말)

(단위: 억 엔, %)

회사명	원수보험료		순이익		코로나 보험금	
	금액	증가율 ¹⁾	금액	증가율	국내	해외
토쿄해상 HD	1조 8,095	0	623	-47	770	
MS&AD HD	1조 8,690	-3	966	-41	90	390
SOMPO HD	1조 5,688	4	396	-10	17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가집계 실적임

자료: 日本経済新聞(2020. 11. 19), 損保決算、コロナ禍でも底堅く

바. 중국

- 2020년 중국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판매위축으로 전년 대비 6.1%p 하락한 6.1%에 그쳤음⁷⁴⁾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에 비해 각각 6.2%p, 5.8%p 낮아진 7.5% 및 2.4%로 하락함
 - 생명보험종목 중 상해보험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외출 및 여행 활동 감소

73)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을 기반으로 한 손해보험그룹임

74) 中国银行保险报网(2021. 2), “2020年保险业成绩单出炉”

- 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
- 손해보험종목 중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의 판매축소로 전년 대비 18.4% 감소함
 - 분기별 증가율을 보면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4분기에 2.3%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13.8%로 회복됐지만 3/4분기부터 다시 하락함
 - 2020년 3/4분기 및 4/4분기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9.1% 및 1.7%임
- 2020년 중국 전체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생명보험의 기저효과로 2019년에 비해 3.0%p 상승한 7.9%를 기록함⁷⁵⁾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9년 -0.1%에서 8.8%까지 상승했지만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9년 10.3%에서 7.0%까지 하락함
 - 2020년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 상승은 2019년 생명보험 만기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임
 - 분기별 증가율을 보면 전체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1/4분기에 -8.6%를 기록한 이후 2/4분기부터 두 자릿수로 회복됨
 - 2020년 2/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보험산업 증가율은 각각 12.5%, 15.8% 및 12.5%임
-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전체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 대비 8.8% 하락함⁷⁶⁾
-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247억 위안 및 37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및 5.8% 하락함
 - 2020년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수익 급증에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 하락을 초래함
- 2021년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확산 진정으로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⁷⁷⁾

75) 中国银行保险报网(2021. 2), “2020年保险业成绩单出炉”; 中国银行保险报网(2020. 2), “2019年保险业原保费收入同比增长12.17%”

76) 新浪财经(2020. 7), “上半年保险业净利润同比仅降9%投资收益暴涨35%”

77) SwissRe(2020. 7), “World insurance: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2020년에 비해 약 8%p 상승했지만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2020년과 비슷함

사. 대만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은 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나타남⁷⁸⁾
 - 2020년 1~11월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2조 8,169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 감소함
 - 생명보험 영업보험료는 2.5% 증가하였으나 신계약보험료는 -28.7%로 감소함⁷⁹⁾
 - 시장금리 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위축은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 원인임⁸⁰⁾
 - 2020년 1~11월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1,711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
 - 신차 판매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매출 확대 및 풍력건설 증가에 따른 건설공사보험 매출 확대는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임⁸¹⁾
- 2020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 하락함⁸²⁾
 - 2020년 1~11월 기준으로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9년 말 3.5%에서 -6.6%로 전환됐으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9년 말 9.7%에서 1.1%까지 하락함
- 2020년 보험산업의 세전 영업이익은 2,231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함⁸³⁾
 -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의 세전 영업이익은 각각 2,061억 대만 달러, 170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2%, 6.3% 증가함

78) 金融監督管理委員會保險局(2021. 2), “109年11月保險市場重要指標”

79) 中華民國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2021. 2), “109年1~12月壽險業績統計”

80) 好險網(2020. 11), “這2險種抗跌撐腰! 壽險前10月初年度保費減幅縮小”

81) 好險網(2021. 1), “兩款保單撐全場今年產險保費估跳長5%”

82) 金融監督管理委員會保險局(2021. 2), “109年11月保險市場重要指標”

83) 金融監督管理委員會保險局(2021. 1), “109年12月保險業損益、淨值, 以及兌換損益、避險損益與外匯價格變動準備金情形”

- 한편, 보험산업의 순자산 규모는 2조 6,631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0% 상승함
 -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2조 5,185억 대만 달러, 1,446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5%, 6.9% 상승함

○ 2021년 대만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는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⁸⁴⁾

- 2021~2030년 대만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약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아. 호주

○ 2019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9.2% 감소했으나,⁸⁵⁾ 손해보험은 3.6% 증가함⁸⁶⁾

- 손해보험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보험, 화재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산업특종위험보험(ISR: Industrial Special Risk)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9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함

-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였고,⁸⁷⁾ 손해보험은 11.4% 감소하였음⁸⁸⁾
 - 특히 빅토리아주에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이 크게 감소하였음

○ 2019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세후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히 생명보험의 적자가 큼

84) 經濟日報(2020. 7), “安聯報告預測台灣保費收入明年強升”

85) Net policy revenue 기준. <https://www.apra.gov.au/news-and-publications/apra-releases-life-insurance-statistics-for-september-2020>

86) Net earned premium 기준. APRA(2020. 11. 26),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87) Net policy expenses 기준. <https://www.apra.gov.au/news-and-publications/apra-releases-life-insurance-statistics-for-september-2020>

88) Gross incurred claims 기준. APRA(2020. 11. 26),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 생명보험회사 세후영업이익이 -16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전년 동기인 2억 호주 달러 대비 900% 감소한 수치임⁸⁹⁾
 - 이 같은 감소의 원인으로 2019년 4/4분기 및 2020년 1/4분기의 실적 하락이 지목되며, 특히 소득보상보험으로 알려진 개인장애소득보험(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의 손실이 컸음
 - 손해보험회사 세후영업이익은 9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전년 동기인 34억 호주달러 대비 73.5% 감소한 수치임⁹⁰⁾
 - 이 같은 감소의 원인으로 2019년 12월 말에서 2020년 초에 발생한 재앙적 수준의 산불과 폭풍으로 인한 낮은 언더라이팅 실적 및 2020년 1/4분기 코로나 19에서 기인한 낮은 투자 실적이 원인으로 지목됨
- Fitch Rating⁹¹⁾에 따르면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호주 손해보험회사의 실적 하향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최종 비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잔존함
-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중 손해보험에서 기업휴지보험의 실적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나, 보험사들이 건전한 자본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인 손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⁹²⁾
 - Fitch는 보험 상품이 갱신되고 보험회사가 상품 약관을 업데이트하고 감염병 면책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 싱가포르

- 2020년 1~9월 생명보험 가중치 반영 신계약 수입보험료⁹³⁾와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89) Net profit after tax 기준. <https://www.apra.gov.au/news-and-publications/apra-releases-life-insurance-statistics-for-september-2020>

90) <https://www.apra.gov.au/news-and-publications/apra-releases-general-insurance-statistics-for-september-2020>

91) <https://www.asiainsuranc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5419/Type/eDaily/Australia-Fitch-says-overall-COVID-19-losses-will-be-manageable-for-insurers>

92) 최근 호주 법원은 검역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였는데, 호주 보험업계는 기업휴지보험이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는 요율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항소 중에 있음

93) 가중치 반영 신계약 수입보험료(Weighted new business premiums): 신계약 수입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함 ① 단일 수입보험료 납부 상품의 10% 가격 ② 연간 보험료 납부 상품의 1년치 수입보험료 합계 ③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품의 조정 가격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변동함⁹⁴⁾

-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1~9월 가중치 반영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29억 8,560만 싱가포르 달러로 30억 3,87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함⁹⁵⁾

- 2020년 2/4분기에 시행된 서킷브레이크의 영향으로 2020년 1/4~2/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가 13%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는 2/4분기 대비 90.6%가 증가하여 이 같은 실적을 만회함⁹⁶⁾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2020년 1~9월 수입보험료는 19억 5,670만 싱가포르 달러로, 19억 5,48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2020년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현재 집계되지 않았고,⁹⁷⁾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함⁹⁸⁾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2020년 1~9월 보험금은 10억 8,690만 싱가포르 달러로, 1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함

○ 2020년 생명보험의 손익 자료는 현재 집계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함⁹⁹⁾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2020년 1~9월 영업이익은 3억 1,510만 싱가포르 달러로, 2억 4,67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함

94) Earned premiums 기준. <https://www.mas.gov.sg/statistics/insurance-statistics/quarterly-unaudited-statistics>

95) <https://www.lia.org.sg/news-room/industry-performance/2020/life-insurance-industry-sees-increase-in-new-business-in-3q-2020-compared-to-2q-2020/>

96) 2020년 3/4분기 가중치 반영 수입보험료는 13억 2,460만 싱가포르 달러로, 6억 9,51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2/4분기보다 약 6억 2,950만 싱가포르 달러가 많은 수준임. 3/4분기의 경우 경제가 또한 7.9% 성장함

97) 싱가포르 생명보험 보험금에 관한 자료는 연간 보고서에만 집계되며 분기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음(2020년 연간 보고서는 현재 발간되지 않음)

98) Net Claims Incurred 기준. <https://www.mas.gov.sg/statistics/insurance-statistics/quarterly-unaudited-statistics>

99) Operating profit(loss) 기준. <https://www.mas.gov.sg/statistics/insurance-statistics/quarterly-unaudited-statistics>

차. 소결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험산업은 락다운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판매활동 위축으로 신계약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이 감소함
 - 특히 손해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과 관련한 막대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휴지보험을 제외하고는 손해보험의 피해는 생명보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의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만의 경우 손해보험은 오히려 5.8% 성장함
 - 코로나19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해외자회사를 거느린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 기업휴지보험 손실로 이익이 크게 감소함
-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팬데믹으로 인한 경각심에 대한 신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5. 보험상품 영향

가. 기업휴지보험(BI: Business Interruption)

-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점포영업 중지 및 영업시간 단축 등과 같은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그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은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최근

연방의회가 소급 보상 등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보험약관은 물리적 손해를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고, 바이러스에 기인한 손실·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음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현재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코로나19에 기인한 사업중단 손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팬데믹에 의한 사업중단 손실 보상 및 소급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¹⁰⁰⁾

○ 영국은 금융당국이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음

- 영국은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손해를 완전 면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사스(SARS) 사태 후 대부분의 영국 보험회사들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 질환을 열거하고, 열거 질환 이외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업중단 손실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Hiscox 등 일부 보험회사들의 약관은 신고대상 질환을 보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즈 등의 주정부는 2020년 3월에 코로나19를 신고대상 질환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에 영국 FCA는 2020년 5월 모든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 관련 기업휴지보험의 약관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iscox 등 17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 해석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함

100) 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overage Act of 2020 등임

〈표 I-10〉 영국 Hiscox 기업휴지보험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 사유 관련

항목	보험약관 주요 내용
보상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의 사업활동 중단에 의해 단독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 및 표에 정한 항목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
공적기관	11. 보험기간 중 공적기관이 지시한 다음의 제한 때문에 피보험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살인 또는 자살 b. 감염증 또는 전염병 발생(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 c. 피보험자 시설물에서 소비된 음식물에 기인하는 부상 또는 질병 d. 배수구 또는 기타 위생설비의 결함 e. 피보험자 시설물에서 해충 발생

자료: 濱田 和博(2020.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損害保険業界への影響”, 損保総研レポート 第132号

○ 코로나19로 기업휴지보험(BI: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영국 FCA는 신속성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15일 고등법원 판결¹⁰¹⁾이, 2021년 1월 15일 대법원의 판결¹⁰²⁾이 내려짐¹⁰³⁾

- 대법원에서는 질병(The disease clauses) 조항, 접근 금지 및 혼합 조항(The prevention of access and hybrid clauses), 인과관계(Causation), 추세 조항(The trends clauses), 그리고 트리거 전 손실(Pre-trigger losses)에 대해서 논의함
 - 질병 조항에서는 신고 대상 질병의 정의 및 위험 발생과 업무 중단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임
 - 접근 금지 및 혼합 조항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입의 성격에 법적 강제성 필요 여부, 금지 또는 사용 제재가 완전한 폐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인과관계에서는 ‘질병 발생 →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영업 중단 →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임
 - 추세 조항에서는 영업 중단 발생과 관계없이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 트리거 전 손실에서는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 이전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101) The High Court(2020. 9. 15), Case No: FL-2020-000018

102) The Supreme Court(2021. 1. 15), Case ID: UKSC 2020/0177

103) FCA(Last update 2021. 2. 15),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FCA의 테스트 케이스는 모든 가능한 분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¹⁰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액이 높아짐
 -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주변 국가들이 기업휴지보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의 기업휴지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명확하지만 AXA는 코로나19에 기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험계약자와 화해를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건전감독청(ACPR)은 2020년 5월에 국내에서 판매 중인 기업휴지보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1개 손해보험회사, 220종의 보험약관을 점검하였음
 - 그 결과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에서 약 2.6%가 코로나19에 기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 4.1%는 손실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AXA의 경우 코로나19에 기인한 사업중단 보상이 불명확하지만 음식점 등 1,700여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화해를 추진하고 있음¹⁰⁵⁾

〈표 I-11〉 프랑스 ACPR의 기업휴지보험 조사 결과

사업중단 보상 관련 보험약관 수(2020년 3월 말)		1,134,690건
보험약관상 코로나19에 의한 사업중단 손실 보상 여부 (피보험자 비중)	보상대상	2.6%
	보상대상에서 제외	93.3%
	약관상 불명확	4.1%

자료: ACPR(2020. 6), "Garantie « pertes d'exploitation » : l'état des lieux de l'ACPR"

나. 흥행중지보험

- 현재 상당수 국가들은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스포츠 및 음악회 등 일부 대형 행사 개최를 자율·강제로 중지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흥행중지보험의 비중이 낮지만 행사중지보험에 가입한 특정한 보험계약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것도 있음

104) FCA(2021. 1. 15), "Supreme Court judgment in FCA's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105) Sarah Jolly(2020. 6), "AXA agrees further BI settlement with French restaurant owner"(Commercial Risk)

-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거액의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보험회사들은 20~30억 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예상함¹⁰⁶⁾
- 예컨대 Lloyd's는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지급 중에서 흥행중지 관련 지급비율이 최대로 상승하고, 손해액 기준으로 Lloyd's 33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AXA는 2020년 흥행중지보험에서 약 5억 유로 규모의 보험금 청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¹⁰⁷⁾

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규제, 재택근무와 같은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교통량과 주행거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자동차보험금 청구도 감소함
 - 2020년 3월 독일 및 이베리아반도의 운전량은 코로나19로 각각 전년 대비 50% 및 80% 감소함¹⁰⁸⁾
 - 2020년 4월 및 5월 미국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 26% 하락함¹⁰⁹⁾
-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은 2019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으로 2020년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¹¹⁰⁾
 - 영국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2019년에 100.8%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 94.8%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106)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international/2021/01/27/599039.htm>

107) Reuters(2020. 6), "French Insurer AXA Plans to Cut Dividend by 50% on COVID-19 Impact"

108) Mckinsey&Company(2020. 4), "How the coronavirus could change US personal auto insurance"

109) Insurance Business(2020. 8), "Personal, commercial auto insurers should expect steady declines in premiums written - Deloitte"

110) EY(2020. 6), "UK motor insurance market to return to profit in 2020 due to lockdown impact - but likely short term blip"

- 각국 보험회사들은 손해를 개선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반환하며 재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자동차 사용이 통제되면서 중국 보험회사들은 후베이성 지역의 자동차보험 보장기간을 1개월 연장함¹¹¹⁾
 -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약 140억 달러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으로 추정됨¹¹²⁾
 - 2020년 영국 자동차보험 건당 보험료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으로 전년 대비 20파운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¹¹³⁾
 - 다만 대부분 캐나다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¹¹⁴⁾
 - 2020년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자동차보험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앨버타주와 대서양주의 자동차보험 가격은 모두 상승함
-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수익과 개인소득 감소에 따른 신차 구입 감소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는 2020년 미국 개인과 기업 자동차보험시장 보험료가 각각 전년 대비 6.5%,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¹¹⁵⁾
 - 2020년 1/4분기 미국 자동차보험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급감함¹¹⁶⁾
 - 중국은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선호함에 따라 2020년 1~8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원수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함¹¹⁷⁾

111) 21세기经济报道(2020. 4), “国内外财险公司派送保费大礼包不到两月湖北减免车险保费或达50亿元”

112) III(2020. 11), “Covid-19: Impact on Auto Insurance”

113) EY(2020. 6), “UK motor insurance market to return to profit in 2020 due to lockdown impact - but likely short term bl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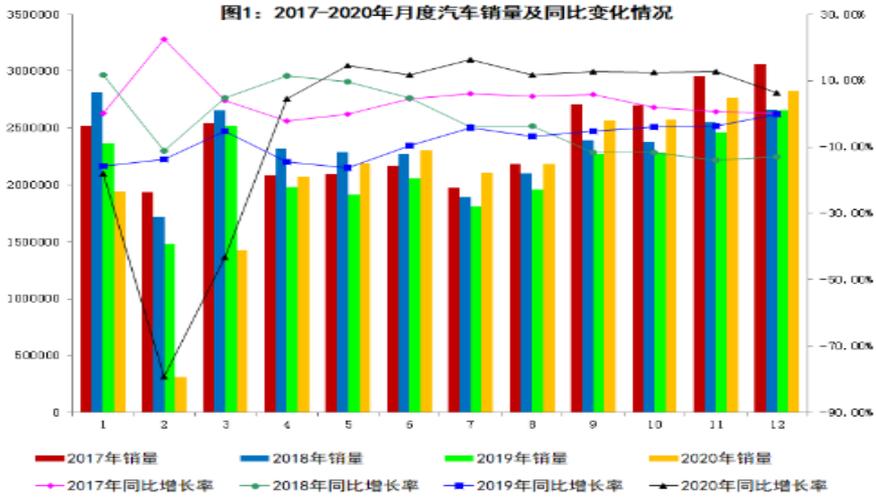
114) CISION(2020. 9), “Car insurance prices rise despite COVID-19 relief measures, according to new report from LowestRates.ca”

115) Insurance Business(2020. 9), “COVID-19’s impact on the auto insurance industry and its clientele”

116) Insurance Journal(2020. 5), “How Coronavirus Has Affected Auto Insurance Shopping”

117)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그림 I-7〉 중국 2017~2020년 월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추이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용 패턴 변화로 운전습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보험(UBI)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¹¹⁸⁾

- TransUnion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72%의 응답자는 자동차를 덜 사용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1%의 응답자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회사가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라.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기업의 경영 악화 및 파산이 증가하면서 회사임원의 부당행위를 이유로 D&O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미국 투자자가 코로나19 대응 미흡 및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일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¹¹⁹⁾

118) GlobeNewswire(2020. 12), "COVID-19's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Will Continue Well into 2021"

119) CCIG(2020. 10), "COVID-19 and Its Impact on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 회사업무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크루즈회사, 코로나19로 인한 판매문제가 생긴 반려동물용품판매회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제약회사, 코로나19 관련 방역물자에 관한 허위정보를 공개한 회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단소송 증가로 D&O보험금 청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회사임원에 대한 소송이 확대될 경우 D&O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것임¹²⁰⁾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숙박·여행업에 있어서 D&O보험금 청구 빈도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D&O보험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
-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에 따르면 2017~2019년 미국 D&O보험은 합산손해율이 3년 연속 100%를 초과해 적자를 겪고 있음¹²¹⁾
 - 보험중개회사인 마쉬(Marsh)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미국 상장회사의 D&O보험 평균 보험료는 전년 대비 44% 증가함¹²²⁾
 - 한편, 2020년 호주 ASX200지수에 편입된 상장회사의 D&O보험 평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함¹²³⁾
 - 보험전문신용평가회사인 에이엠 베스트(A.M. Best)는 2020년 전 세계 D&O보험시장의 보험료 인상률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 자릿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함¹²⁴⁾
- 코로나19로 인한 D&O보험 수요가 증가했지만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D&O보험의 인수조건을 강화하고 있음¹²⁵⁾

120) A.M. Best(2020. 6), "Best's Market Segment Report :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 & O Industry"

121) Fitch(2020. 10), "COVID-19 to drive near term D&O losses"

122) Marsh(2020. 6), "COVID-19 Pandemic Adds to Rate Pressure for D&O Buyers"

123) CCIG(2020. 10), "COVID-19 and Its Impact on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124) A.M. Best(2020. 6), "Best's Market Segment Report :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 & O Industry"

125) Reinsurance News(2020. 10), "COVID-19 to drive near term D&O losses: Fitch"; Property/Casualty360(2020. 8), "A hard D&O market has new meaning in the COVID-19 era"; Feldman & Feldman(2020. 6), "How COVID-19 Can Impact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미국 D&O보험의 갱신율은 16.8%로 전년 동기 대비 12.5%p 상승함
-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질문지 작성, 면책사항 설정, 보험가입금액 하향조정과 같은 인수조건을 강화함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회사의 D&O보험 제공을 포기하는 보험회사도 있음

마. 사이버보험

-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소셜 엔지니어링¹²⁶⁾ 수법이 강화되고 있음¹²⁷⁾
 - 사이버 리스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인터폴은 다음과 같이 최신 사이버 리스크를 예로 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 최신 사이버 리스크 중 주목할 점은 주요 인프라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재택근무를 노린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임
 - 의료기관 및 병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전에 비해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 또한 재택근무 위험에 대한 보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증가함
 - 기업 내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자택에서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정 내에서의 단말기기 및 정보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등이 필요함
 -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IoT를 통한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126) 인간의 심리 또는 인간관계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싱(Phishing), 워터링 홀(Watering Hole), 프리텍스팅(Pretexting) 등이 있음

127) Interpol(2020. 4), "Global Landscape on COVID-19 Cyberthreat"

〈표 I-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최신 사이버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내용
악성 도메인 (Malicious dom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 검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또는 ‘corona’, ‘coronavirus’와 같은 키워드의 도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악성 도메인이 다수 존재함 • Palo Alto Networks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2,022개의 악성 도메인 및 40,261개의 악의적 고위험 신규 등록 도메인이 발견됨
온라인 스캠 및 피싱 (Online scams and phis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범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든 뒤 피해자들이 악성코드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열거나 피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계정 해킹을 시도함 • Trend Micro는 2020년 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100만 건의 스팸 메시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함 • 거래처 또는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입금을 독촉하는 BEC(Business Email Compaction)도 온라인 스캠 및 피싱의 한 유형임
데이터 수집형 멀웨어 (Data-harvesting mal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데이터 수집형 멀웨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금전 절취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함
파괴적인 멀웨어 - 랜섬웨어 및 DDoS (Disruptive malware -ransomware and DD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프라 및 의료기관, 병원 등이 멀웨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섬웨어 또는 DDoS 공격은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주요 시스템을 중단시켜 금전을 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택근무의 취약성 (Vulnerability of working from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범죄자들은 기업, 정부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악용함 • 온라인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도입된 보안 조치로는 불충분해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

자료: Interpol(2020. 4), “Global Landscape on COVID-19 Cyberthreat”; 濱田 和博(2020.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損害保険業界への影響”, 損保総研レポート 第132号

-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안 대책에 대한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 정도와 비례하여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인수 거부가 발생할 수 있음¹²⁸⁾

128) James Rundle(2020. 5. 18), “Cyber Insurers Get Tough on Risk Assessments Amid Coronavirus Pandemic”, *Wall Street Journal*

바. 산재보험

-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필수 인력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산재보험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규정은 없으며 주별로 정하고 있음
 - 대다수 주에서 초동대응자¹²⁹⁾ 및 의료종사자를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보험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음¹³⁰⁾
 - 2020년 12월 9일 기준 17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가 행정명령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9개 주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였음
 -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산재보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주가 증가할 경우 산재 보험금 지급액이 직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산재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주 현황

주	산재 보상 대상자
알래스카, 미네소타, 유타, 위스콘신	초동대응자·의료종사자
일리노이, 뉴저지, 버몬트	초동대응자·의료종사자·그 외 필수인력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모든 근로종사자

주: 2020년 12월 9일 기준임

자료: Josh Cunningham(2020. 12. 9), "COVID-19: Workers' Compensation",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제외하면 재택근무의 증가로 산재 사고의 발생 원인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운송 및 유통업 등 공유 경제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산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함¹³¹⁾
- Marsh는 산재보험 관련 새로운 리스크로 신입사원, 재택근무, 실업자의 증가를 언급하였으며, 사업주가 잠재적인 요인 및 향후 보험금 청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와의 접촉을 실시하는 소방관·긴급 의료 서비스 및 긴급 관리 담당자를 말함

130) Josh Cunningham(2020. 12. 9), "COVID-19: Workers' Compensation",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131) Marsh&McLennan Companies(2020. 4), "COVID-19: What the Pandemic Means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s"

〈표 I-14〉 산재보험의 신종 리스크

리스크 요인	내용
신입사원 (New hi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소매업체의 경우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직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작업 환경, 오리엔테이션 또는 안전 교육 시간의 부족으로 작업 중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음
재택근무 (Telecommu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들의 업무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험이 동일하나,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 환경에 대한 감독의 결여, 부적절한 장비의 사용, 가정 내 방해 요소 등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함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은 불안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실업자 증가 (Growing un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 경제 전망은 부정적이며, 기업들의 해고가 증가함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또는 2010년 초반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근로 소득을 대신해 부정 급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 Marsh&McLennan Companies(2020. 4), "COVID-19: What the Pandemic Means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s"

사. 거래신용보험(무역신용보험)¹³²⁾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이 증가하며 거래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영국 정부는 100억 파운드의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재보험을 통해 무역신용보험 시장을 지원할 예정임¹³³⁾
- 독일 정부는 무역신용보험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유로 정부보증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신용보험회사는 4,000억 유로에 달하는 신용 한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60%를 정부에 양도하도록 함¹³⁴⁾

132) 거래신용보험은 수출 및 국내 상거래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 무역 진흥을 위해 보험회사와 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133) <https://www.gov.uk/government/news/trade-credit-insurance-backed-by-10-billion-guarantee>

134) S&P Global(2020. 12. 4), "Germany Extends €30B Trade Credit Backstop through Mid-2021"

아. 고용배상책임보험¹³⁵⁾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고용주와 직원 간 고용배상책임 청구가 증가하고 있음¹³⁶⁾
 -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의 경우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사무실에서의 감염을 주장함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와 같은 보호계층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함
 - 고용주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명시된 비상 유급 병가(EPST), 응급 가족 의료 휴가(EFMLA) 등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미국의 고용배상책임보험은 표준 약관이 없고, 계약에 따라 보장 내용이 상이하여 코로나19 관련 소송 증가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음¹³⁷⁾
 - 미국의 고용배상책임보험은 예외적으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음

자. 건강보험

- 단기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 혹은 잠재 감염자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사용 증가로 보험금 청구액이 증가하여 민영 보험회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관련 의료비란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 치료 비용, 입원 비용과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함
 - 국가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민영 보험회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를 통과시키며 모든 민영보험회사로 하여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

135) 고용배상책임보험은 고용관계에 있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차별, 괴롭힘, 보복 등에 따른 청구를 보상하는 보험임

136) Jones Day(2020. 9), “COVID-19 Raises Various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Considerations”

137) Hub(2020), “Impacts of COVID-19 on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Coverages”

- 할 경우, 의료비(방문 비용을 포함)에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는 비용 분담 (Cost-sharing) 부분을 면제시킬 것을 명함
- 또한 백신과 같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비용분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미국의 일부 건강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함

○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의 병리적 형태에 대한 추가 연구와 각국 정부 및 민간 보험회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에 집중된 의료 상황으로 기타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이 부족해지고 질병 발생률이 더욱 확대되며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 한편 건강보험 상품별로는 질병 발생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¹³⁸⁾도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각국 보험회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이고 보험혜택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들의 정책방향에 따라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영향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이탈리아에서 일부 건강보험회사는 격리가 필요한 보험계약자에게 일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보험계약자에게 일시금을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 진단 또는 사망 시 보험 계약자와 직계 가족에게 일시불이나 일일 입원수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보험회사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질환자(만성질환 환자) 또는 임산부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캐나다에서 일부 건강보험회사는 장애보험¹³⁹⁾에 대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대기시간¹⁴⁰⁾을 면제해 주고 있음
 - 칠레에서는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면책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함(브라질의 경우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 라트비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건강보상한도(Health Indemnity Limit)를 100%로 높이는 데 동의함

138) <https://www.actuary.org/sites/default/files/2020-11/COVID-19-Combined.pdf> p. 19 "Product-specific decreases in morbidity" 문구 확인

139)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상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임

140) 보험 가입 이후 실제 보험 담보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부담보기간을 의미함

○ 코로나19가 재보험사의 생명 및 건강보험 상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상존하며,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를 심각 단계로 보는 견해부터 중간 규모의 자연재해로 보는 것까지 다양함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보험사가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 발생 및 사망과 관련하여 약 40%의 인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봄¹⁴¹⁾
- 재보험사 Munich Re 관계자는 코로나19를 200년에 한번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더라도 생명 및 건강 보험금 청구액은 14억 유로로, 이는 중간 규모의 자연재해 손실 범위와 유사하다고 봄¹⁴²⁾

차. 사망보험

○ 코로나19로 사망률이 증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액이 증가하나 예상 연금 지급액은 감소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금 지급액은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에서 사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¹⁴³⁾ 생명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사망보험 상품에 대한 영향은 각국 보험회사의 정책 방향과 궁극적인 사망자 수치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일본에서는 비록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사망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망률뿐만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인구 1,000명당 6명이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 적립금이 사망 보험금의 7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¹⁴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비용은 보험업계에

141) <https://www.oecd.org/finance/Initial-assessment-of-insurance-coverage-and-gaps-for-tackling-COVID-19-impacts.pdf> p. 8

142) Winters(2020), "Swiss Re, Zurich Insurance in Talks with Swiss Regulator About Coronavirus Impact", Insurance Journal: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international/2020/03/20/561840.htm>

143) 단, 자살의 경우는 제외됨

144) 사망자가 대체로 고령임을 감안한 대략적인 추정임

1,17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보험회사의 평균 RBC 비율은 424%에서 388%로 감소함¹⁴⁵⁾

- 인구 1,000명당 1명이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 적립금이 사망 보험금의 7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비용은 보험업계에 20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보험회사의 평균 RBC 비율은 424%에서 418%로 감소함¹⁴⁶⁾

카. 소결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직보험은 이번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판결이 향후 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면책조항 등 약관상 해석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와 같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은 면책조항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일본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일반손해보험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요율 인상을 통하여 손실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번 사태로 심각성을 인식한 소비자들로 인하여 상품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45) <https://www.actuary.org/sites/default/files/2020-11/COVID-19-Combined.pdf>

146) <https://www.actuary.org/sites/default/files/2020-11/COVID-19-Combined.pdf>

II 각국 정부 대응

1. 정부 대응

가. 미국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2020년 3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차적으로 2020년 12월 21일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됨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¹⁴⁷⁾

- 코로나19 백신 및 기타 의료용품 개발, 주 및 지역 공공보건기관 및 조직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 총 83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함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2020. 3. 18)¹⁴⁸⁾

- (무료검사)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식량 지원)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학교 5일 이상 연속 휴교 시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유급병가·휴가 제공)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혹은 일할 수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간의 유급병가 제공,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2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함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2020. 3. 27)¹⁴⁹⁾

147)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074>

148)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

14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48>

- 개인과 가족 긴급재난소득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원, 중소기업 소득보호대출 지원, 항공산업에 320억 달러의 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총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함

○ FFCRA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유급병가 및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해 2주(최대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함
- 코로나19로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최대 12주(유급휴가는 10주)간의 추가 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CARES 법에 근거해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아동 500달러)를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중지됨

- 성인 1인당 1,200달러(연 조정소득 75,000달러 이하 대상)를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수표 발송 또는 은행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함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 39주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원함(2020년 7월 31일자로 만료)
- 상환 중지된 원리금은 일정 조건 만족 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으로 편입됨

○ 미 연준(Federal Reserve System)은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고용과 가격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을 발표함

- 2020년 3월 3일, 미 연준은 긴급 FOMC 임시회의에서 코로나19 리스크 확대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1%p 인하함
- 2020년 3월 15일, 미 연준은 FOMC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1.0%p 인하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선언함

-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함

- 2020년 3월 23일, 미 연준은 국채 및 MBS 매입을 지속할 것을 발표하여 사실상
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시작됨
- 2020년 8월 27일, 미 연준은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Statement on Longer-
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개정 내용을 발표함
 - 고용 목표로는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을 목표로 광범위하고 포용적
목표임을 강조하였으며, 물가 목표로는 2%의 장기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달성하
는 것으로 수행방식을 변경함(Average Inflation Targeting)
- 2020년 12월 16일, 미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중장기
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통화정책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함

나. 영국

- 영국은 2020년 3월 11일 예산 발표를 통해 공공 서비스,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경
기 부양 계획을 수립하였음¹⁵⁰⁾
 - 영국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순 투자를 국민 소득의 2% 수준에서 3% 수준으로 확
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의 긴급 재정 부양책을 도입함
- 팬데믹 초기 영국 정부는 3,300억 파운드 이상의 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함¹⁵¹⁾
 -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 제도(CBI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0만 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하며,
최초 6개월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함
 - 소매, 접대, 레저 산업의 가장 소규모 업체에게 25,000파운드의 현금 보조금을 지
원하며, 중소 사업세율 감면(SBRR: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및 지방 세율 감
면(RRR: Rural Rates Relief)을 받은 모든 사업체에 대해 1,000파운드의 현금 보
조금을 지원함
 - 기업의 임대료 미납 시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이를 금지하였으
며, 해당 조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15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1)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 2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병가급여(SSP: Statutory Sick Pay)를 정부가 1인당 최대 14일 동안 전액 부담함
 - 대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기업금융시설(CCF: 코로나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을 지원함
- 영국 국세청(HMRC)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납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분기별 세금 신고에 대한 세금을 유예함¹⁵²⁾
- 타격이 심한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 사업세율을 면제하고 VAT 납입을 연기함¹⁵³⁾
 - 2020~2021년 동안 영국의 소매, 접대, 레저 산업에 대해 사업세율을 인하하고, 펍의 경우에도 5,000파운드의 사업세율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산업별로는 예술, 문화, 유산 산업 및 관광산업, 의료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함
- 예술, 문화, 유산 산업의 보호를 위해 15억 7,000만 파운드의 지원을 계획함
 - 관광 및 숙박 산업 등에 대한 VAT를 20%에서 5%로 인하하고, VAT 인하 조치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였음
 - 의료품 조달을 위해 인공호흡기, 테스트 키트 및 방호복 등 EU 외에서 수입되는 의료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직업유지제도(CJRS: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를 도입하여 영국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매달 총 2,500파운드까지 지원함¹⁵⁴⁾¹⁵⁵⁾
- 정부는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IT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근로자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¹⁵⁶⁾
 - 법정 병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자가 격리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고, 실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Universal Credit)을 지원함¹⁵⁷⁾

152)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3)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4)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5)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6)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57)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영국 국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0년 9월 20일 기준 120만 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근로자 960만 명에 대해 HMRC에 청구한 금액은 총 393억 파운드임
-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통해 3개월 동안 2,500파운드를 한도로 소득의 80%까지 지원함¹⁵⁸⁾
- 주택 관련 임차인의 경우 2021년 3월 말까지 퇴거 통지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락다운 구역 및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퇴거 조치가 금지되고 취약계층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1억 8,000만 파운드가 투입됨¹⁵⁹⁾

다. 독일

- 독일 정부는 총 1,3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¹⁶⁰⁾ 부도, 대량 해고, 빈곤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전례 없는 7,500억 유로(약 8,680억 달러)의 지원을 실시함¹⁶¹⁾
 -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기업, 공공 부문, 가정 지원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었으며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¹⁶²⁾¹⁶³⁾
 - 긴급 자금지원(Überbrückungshilfen)이 실시되었으며, 250억 유로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하였음
 - 이 지원 조치는 2020년 6월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 수익 감소 방지를 위해 세금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회계연도 2020~2021년 동안 세금 산정 시 동산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함
 - 이에 따라 투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158)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9) GOV.UK(2020. 9. 10), "Government sets out comprehensive support for renters this winter"

16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1) DW(2020. 7. 22), "Coronavirus: How Germany's economy would cope with a second wave"

162)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3)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 소규모 기업을 위해 새로운 비상 저금리 대출을 마련하였으며, 10~50명 규모의 소규모 기업은 독일 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250인 이상 대기업을 위해서는 경제 안정화 기금(Economic Stabilisation Fund)을 마련함
- 소비 촉진을 위해 VAT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 조치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 일반 세율은 19%에서 16%로, 식료품 및 레스토랑에 적용되는 세율은 7%에서 5%로 인하함
- 독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축근무 수당(Kurzarbeit)을 지원하고,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¹⁶⁴⁾
- 단축근무 수당은 기간에 따라 임금 손실의 60~80%를 지원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4개월 연장됨¹⁶⁵⁾
 - 3~6월 사이 1,2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90% 많은 수치임¹⁶⁶⁾
 -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의 수급 기간이 2020년 5~12월 사이 종료되는 경우 수급 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으며, 노동청은 단축 근로자의 손실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100% 부담함¹⁶⁷⁾
 - 감염방지법(IfSG: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Act)을 적용하여 병가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격리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보장함¹⁶⁸⁾
- 주택 관련 임차료의 체납으로 임대인이 임차권을 종료할 수 있으나, 소득 손실이 있는 개인 또는 영리 세입자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권리 행사가 제한됨¹⁶⁹⁾

164)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2020. 8. 4), "Coronavirus (SARS-CoV-2): Questions relating to labour law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165)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6) DW(2020. 7. 22), "Coronavirus: How Germany's economy would cope with a second wave"

167)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68)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69)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 단, 그 이후 임대료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
- 보육 및 교육을 위해 독일 정부는 2021년 아동 수당 금액을 증대하고, 편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함¹⁷⁰⁾¹⁷¹⁾
 - 가족 및 편부모 가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일회성 긴급 아동수당 300유로를 지급하였으며, 편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을 1,908유로에서 4,000유로로 인상함¹⁷²⁾¹⁷³⁾
 -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는 보육기관이 폐쇄된 경우 6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월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¹⁷⁴⁾
 -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보조금 제도(Kfw-Studienkredit)를 지원함¹⁷⁵⁾

라. 일본

- 일본 정부는 1차 추경(4. 7)을 발표하고 1차 경제대책 보완이 핵심인 2차 추경(5. 27)을 발표함
 - 1차 추경(4. 7)에 따른 경제대책은 다음과 같음¹⁷⁶⁾
 - (사업 지속화 지원금) 전년도 대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에게 각각 최대 200만 엔, 100만 엔을 지급함
 - (세제우대 조치 등)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50~100% 감면함
 - (관광, 식당, 이벤트 사업 지원)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국내 여행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함
 - (고용조정기금) 사업주가 근로자 일시 휴업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계속할 경우 인건비 일부(10%) 등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함

17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71) deutschland.de(2020. 12. 9), "Coronavirus: Latest updates"

172) Federal Ministry of Finance, "A stimulus package for everyone in Germany"

173)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

174)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75) Integrationsbeauftragte(2020. 11. 25),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Federal Chancellor and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176) 内閣官房(2020. 12. 21)

- (지역경제 지원) 지방활성화교부금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부합한 필요 사업에 지원함
- (의료 지원) 인공호흡기 및 인공 심폐 장치 확보, 의료기관에 마스크 및 방호복 우선 배포, 코로나19 치료제(Avigan) 200만 명분을 확보함
- 2차 추경에 따른 경제 대책은 다음과 같음¹⁷⁷⁾
 - (기업자금 지원) 경영난 기업에 무이자/무담보 대출 확대, 공공 금융기관의 후순위 대출과 출자 등의 자본성 자금 지원, 해외자회사의 대출에 대한 무역보험의 보증 확충, 민간 금융기관에의 자본참가를 통한 금융 기능 강화 등
 - (고용유지 지원) 고용지원금액 증액, 적용기한 연장, 노동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 신설 등
 - (사업 재개 보조금) 사업 재개를 위해 설비투자 등을 실시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함(나이트 클럽, 라이브 카페 등은 최대 200만 엔)
 - (임차료 지원) 매출이 급감하여 임차료 지불이 곤란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최대 600만 엔(월 최대 100만 엔), 300만 엔(월 최대 50만 엔)을 각각 지급함
 - (의료체계 강화) 중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위로금 지급, 마스크와 의복 등 의료용 장비의 지급 강화,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지원 등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수습 이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제3차 추경 예산안을 12월 8일에 결정함¹⁷⁸⁾

- (코로나19 확대 방지책) 지방지자체 의료 체제 정비에 충당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을 증액하고, 백신 접종 체제 정비 및 치료약 확보를 추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협력금 비용인 '지방창생임시교부금'도 1.5조 엔 증액함
- (포스트 코로나 대비) Go To 캠페인을 2021년 6월까지 연장,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2021년 2월까지 연장, 일본정책금융공고 실질, 무이자·무담보유자를 2021년 전반까지 지속, 탈탄소화 추진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조 엔 규모의 기금 창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 지원하는 최대 1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도입함

177) 국제금융센터(2020. 5. 20); 内閣官房(2020. 12. 21)을 기초로 작성함

178) 日本經濟新聞(2020. 12. 15), 3次補正予算案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 5월부터 지급할 것을 4월 20일에 결정함¹⁷⁹⁾
 - 지급 대상은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 국민이고, 외국인도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를 가능하며, 지급방법은 현금임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과 요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Go To 캠페인 사업을 실시함
 - 주요 사업으로 Go To Travel(숙박시설 이용 보조), Go To Eat(상품 등 구입 시 보조) 등임

마. 중국

-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이용해 방역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 및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섬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의료물자 생산기업, 생필품 생산기업, 운송 및 판매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20년 2월 3일 3,000억 위안의 재대출(상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공급함¹⁸⁰⁾
 - 또한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해 2월 26일 및 4월 10일에 각각 5,000억 위안 및 1조 위안의 재대출을 추가로 제공함
 -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0일 및 4월 1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기업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함
 -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각각 기존의 4.15%, 4.80%에서 3.85%, 4.65%로 인하함¹⁸¹⁾
 -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3월 16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1.0%p 내렸으며, 4월 3일 중소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1.0%p 인하하기로 결정함¹⁸²⁾

179) 기초안 가구당 30만 엔에서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수정됨

180) 凤凰网(2020. 4), “央行: 3000亿专项再贷款接近收官1万亿再贷款再贴现将惠及逾200万中小企业”

181) 新华社(2020. 4), “4月LPR报价双降市场预期未来仍存降准空间”

182) 北京日报(2020. 4), “央行定向降准1个百分点释放长期资金4000亿元”

- 포용금융¹⁸³⁾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0%p 추가로 인하함

○ 중국 재정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조 2천 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승인함¹⁸⁴⁾

- 이번 특수목적채권은 철도교통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시설, 환경보호, 농업수리 및 산업단지 등 분야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것임
- 2020년 3월 31일까지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 규모는 1.08조 위안임

○ 은보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함¹⁸⁵⁾

- 2020년 1월 26일 코로나19 동안 방역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한 용자 제공, 원활한 금융서비스 보장,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금지, 피해지역의 금융편의 제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요구함¹⁸⁶⁾
- 2020년 2월 1일 피해지역, 피해산업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피해고객에 대한 여신지원 제공, 온라인 금융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금융기관에 재차 요구함¹⁸⁷⁾
- 2020년 2월 15일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실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금융기관에 요구함¹⁸⁸⁾
- 2020년 3월 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신규용자 확대, 온라인 업무수리 채널 개통을 금융기관에 요구함¹⁸⁹⁾

○ 세무총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해 일련의 조세정책을 발표함

183) 포용금융은 저소득계층, 영세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포용금융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央行调整普惠金融定向降准考核标准”를 참조 바람

184)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 4), “增加地方政府专项债规模和强化对中小微企业普惠性金融支持有关情况发布会”

185) 中国政府网(2020. 4), “国务院联防联控机制：用好已有金融支持政策精准支持疫情防控和企业复工复产”

186)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187)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人民银行·财政部·银保监会·证监会·外汇局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影响的通知”

188)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189)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 “银保监会·人民银行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联合发布《关于对中小微企业贷款实施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通知》”

- 2020년 2월 10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정책 수행 강화, 온라인 납세방식 활용 확대, 납세현장 방역조치 강구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납세기간 연장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¹⁹⁰⁾
-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 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부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¹⁹¹⁾

○ 시장감독총국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지원정책을 발표함¹⁹²⁾

-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조업 재개에 대한 지도, 영업비용 경감(자금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세금 감면 및 임대료 감면), 시장진입 조건 개선을 포함함

바. 대만

○ 2020년 2월 25일부터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조 500억 대만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¹⁹³⁾

- 경기부양책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예산(2,100억 대만 달러), 원래 정부기관이 보유한 예산 및 운용한 기금(1,400억 대만 달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신용대출한도(7,000억 대만 달러)를 포함함
- 경기부양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 세제 지원 및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에 집중되어 있음
 - 금융지원은 기업 조업 재개에 필요한 대출,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은행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함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 실업자에 대한 지원,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 세제 지원은 영업세, 소득세, 영업용 부동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이 있음
 -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은 영업을 어려운 기업의 수도요금 5% 할인, 서비스

190) 国家税务总局(2020. 2), “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191) 国家税务总局(2020. 2), “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192) 国家医疗保障局(2020. 2), “国家医保局·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

193) 行政院(2020. 4),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

업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10% 할인 및 대기업 전기요금 중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함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에게 코로나19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명령함¹⁹⁴⁾
 - 채무 상환 유예 대상은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소비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기타 개인 대출이 있으며,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의 유예 기간은 3~6개월로 책정됨
- 2020년 5월 4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¹⁹⁵⁾
 -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및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34만 명 및 140만 명에 달함
-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사람, 의료기관 의료진, 의료기관, 숙박업체,¹⁹⁶⁾ 제약업체, 사회복지 사업자, 돌봄서비스업체¹⁹⁷⁾ 및 자연치유 서비스업체¹⁹⁸⁾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¹⁹⁹⁾
 - (일반인)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리대상자, 검역대상자에게²⁰⁰⁾ 매일 1인당 1,000대만 달러를 지급함
 - (의료기관 의료진)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여행 취소로 발생한 비용손실을 보상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매달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수당을 지급함
 - (의료기관)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영업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며, 코로나19 검역업무가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보너스를 지급함
 - (숙박업체)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숙박업체,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체의

194)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5), “個人受疫情衝擊者貸款至年底前可申請展延”

195) 行政院(2020. 5), “雨露均霑擴大紓困 蘇揆：補助工作無加保者及農漁民”

196) 숙박업체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가옥, 노인복지기관, 유아보육기관, 장애인 복지기관을 포함함

197) 돌봄서비스업체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일간 돌봄 서비스 업체, 장애인 가정식 돌봄 서비스 업체, 2세 미만 아동의 보육기관 및 아동과 유소년 돌봄 업체가 있음

198) 자연치유서비스는推拿,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및 스포츠마사지를 포함함

199) 衛生福利部, 嚴重特殊傳染性肺炎專區, 紓困補償措施

200) 격리나 검역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인 경우 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함

영업 손실 일부를 보상함

- (계약업체) 코로나19로 인한 원료나 한약재 공급 부족이 발생한 계약업체에게 최고 200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 (사회복지 사업자) 영업을 어려운 사회복지 사업자에게 최고 3개월의 추가근무수당, 운영비, 대출 이자를 지급함
- (돌봄서비스업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업체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영업을 어려운 업체에게 대출금의 이자만을 지급함
-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추나요법, 마사지, 발마사지 및 경락마사지를 제공하는 자연치유 서비스 업체에게 최고 3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사. 호주

- 호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함²⁰¹⁾
 - 근로자 지급분으로 2021년 1월 3일까지 2주 기준 1,200호주달러를 기업에 지원함
 -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2주 기준 750호주달러를 지원함
 - 근로자 지급분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 기준 1,000호주달러를 기업에 지원함
 -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2주 기준 650호주달러를 지원함
 - 고용유지금 수혜자에 해당할 경우 고용인이 이를 통지함
- 호주 정부는 구직자 수당,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미망인보조금(Widow Allowance), 질병수당, 청소년 수당, 학업수당(Austudy), 학비보조금(ABSTUDY) 수당, 육아수당, 농가수당, 특별혜택 수령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2주 기준 250호주달러를 지원함²⁰²⁾
 - 지원액은 2021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 기간 동안 125호주달러로 감액되고, 구직자의 경우 감액이 시작되는 2021년 1월 1일 이전 신청을 통해 2주 기준 300호주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01)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2)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 재정적 위기 상황에 있거나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시행 중이며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²⁰³⁾
- 센터링크²⁰⁴⁾(Centrelink) 지급액 해당자이거나 복지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는 4월과 7월 각각 750호주달러를 지급받았고 12월에 250호주달러, 2021년 3월 250호주달러를 추가 지급받을 예정임
- 무직자, 구직자 수당/청소년수당/육아수당/특별혜택/농가수당 수혜자 혹은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비즈니스 중단 등의 기준²⁰⁵⁾을 충족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액의 10,000호주달러까지 인출 가능함²⁰⁶⁾
-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뉴사우스웨일즈 주 소재 주류 관련 사업장(레스토랑, 바, 펍, 클럽, 호텔, 주류 판매소 등)에 다음의 세금을 면제함²⁰⁷⁾
 - 신규 주류 면허 신청 수수료, 연간 주류 면허 기본 수수료, 2021~2022년 연간 주류 면허 수수료 및 기타 세금임

아.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16세 이상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감원 또는 계약 해지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한 경우, 3개월 연속 비자발적 무급휴가 상태인 경우, 혹은 최소 3개월간 연속적으로 총 급여의 30% 이상이 감소한 경우 코로나19지원금(CSG)을 제공함²⁰⁸⁾
 - 비자발적 실업 상태인 경우 직전 급여에 상응하는 현금을 제공하며 최대 8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함
 - 3개월 연속 급여가 30% 이상 삭감된 경우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3개월간 월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함

203)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4)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고용안정서비스와 보육지원금(CCB)이 있음

205)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6)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withdrawing-and-using-your-super/early-access-to-your-super/>

207) <https://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Fee-and-Licence-Relief-NSW>

208) <https://www.gov.sg/article/financial-support-to-help-singaporeans-affected-by-covid-19>

- 기존에 혜택자도 2020년 10월 1일부로 추가 신청이 가능함
- 코로나19에 피해 가구에 대해 일회성으로 최대 1,0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²⁰⁹⁾
 - 지원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②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통보(SHN: Stay-Home Notice), 강제휴가(Mandatory Leave of Absence) 혹은 집안격리명령(Home Quarantine Order)을 받음
 - ③ 코로나19 감염 이전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월소득이 6,200싱가포르 달러 또는 1인당 월 소득이 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가구
 - ④ 가구 소득이 전체 또는 최소 10% 손실을 경험한 가구

〈표 II-1〉 싱가포르 코로나19 피해 희생보조금 지원정책

대상자	지원액
실직(예: 감축, 고용 계약 해지) 최소 3개월 연속 비자발적 무급 휴직	3개월간 월 최대 700싱가포르 달러 지원
최소 3개월 연속 평균 50% 이상의 급여 손실 경험 최소 3개월 연속 자영업자의 평균 순무역 소득(NTI: Net Trade Income) 50% 이상 손실 경험	3개월간 월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 지원

자료: 싱가포르 사회및가계지원부²¹⁰⁾

209) Courage fund for lower-income households

210) <https://www.msf.gov.sg/assistance/Pages/covid19relief.aspx>

-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종사자로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회성 현금으로 5,0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며 2020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함²¹¹⁾
 - 일선근로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도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회성 현금으로 3,000싱가포르 달러를 받으며 2020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함²¹²⁾

2. 소결

-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
 - 긴급자금 지원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을 제공함
 -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함
 -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함
 -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함
-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함
 - 부가가치세 인하 또는 영업세, 소득세 면제, 납세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발표함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됨
 -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지원대책은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코로나 19 환자가 진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거의 없음
 - 2차, 3차 파동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락다운 조치의 반복과 추가적인 정부지원 대책이 발표됨

211) <https://www.supportgowhere.gov.sg/>

212) <https://www.supportgowhere.gov.sg/>

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1. 총론²¹³⁾

- 세계 각국 보험산업의 금융당국,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크게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함
-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
 - 금융당국은 보험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특정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팬데믹 상황에서 보험서비스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재무건전성 테스트 최소화 등 불요불급한 행정 부담을 덜어줌²¹⁴⁾
 - 특히 디지털 및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전화가입 허용, 온라인 판매 상품 확대, 디지털 장치로 계약자 동의 허용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짐
- (지급 능력 및 유동성 관리)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함
 - 대부분의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나타난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함
 -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금융당국은 기존의 감독 도구를 활용하는 반면, 다른 금융당국들은 투자 한도 또는 회계기준의 유연성을 포함하여 규제 또는

213) OECD(2020), "Insurance Sector Response to COVID-19 by Governments, Supervisors and Industry" 참조

214) 윤성훈(2021)

감독 요건을 일부 조정함

- 재무건전성 기준과 유동성 요구 사항을 완화하기도 함
- EIOPA는 재무건전성과 자본 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²¹⁵⁾
 - 보험회사의 회생기간 연장조치를 포함하여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유연성을 허락함
 -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게 충족을 위해 감독당국이 허용한 회복 기간을 연장함
 - 보험회사의 배당 정책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보험계약자 지원)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함

-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불확실성을 완화함
 - 영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함²¹⁶⁾
- 주요국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보험계약자를 지원함
 - 보험료 납입 유예, 보장기간 연장, 대출조건 완화, 보험료 환불 등임
 - 이러한 보험계약자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당국에 의해 의무화되거나 권장됨
-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자 행태변화(재택근무)에 따라 보험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험보장이 지속되도록 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도 상업용 목적의 식당 음식배달을 한시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일부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정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함
 - 많은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 계약자, 특정 유형의 근로자(예: 의료 종사자), 또는 기업(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에게 추가 보장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함

215)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 / 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16) FCA(2020), "FCA Seeks Legal Clarity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Alongside Package of Measures to help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대부분의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도 위험 증가와 이에 따른 관련 보험의 보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가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별 법률 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국가별로 다르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 타 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협력 등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²¹⁷⁾
- 다음 절에서는 보험서비스 연속성과 보험계약자 지원 측면 중심으로 주요국의 구체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 살펴봄

2. 미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들이 필요 시 신속히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회사에게 원격진료서비스 보장과 이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대면 진료 시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함(2020. 3. 30)²¹⁸⁾
 -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전화 기반 혹은 비디오 기반 등의 모든 형태의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뉴욕주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보험계약자가 원격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긴급규제(Emergency Regulation)를 적용함(2020. 3. 15)²¹⁹⁾
 -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본인부담을 면제함
-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될 경우, 이민자 신분에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 보상 혜택(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받을 수 있음을 보험회사에 환기시킴(2020. 4. 6)²²⁰⁾

217) 윤성훈(2021)

21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4-2020.cfm>

219)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6

220)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6-2020.cfm>

- 헬스케어, 응급서비스, 식품 생산, 영업, 배달 등 최전방 직업의 근로자들을 포함함
- 뉴욕주는 보험회사와 여행사에게 전염병 사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CFAR: Cancel For Any Reason)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2020. 3. 6)²²¹⁾
- CFAR 여행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표준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함께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 않도록 함
 - 해당 상품은 표준 여행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40~60% 가량 높고, 전염병 등의 이유로 여행 취소 시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함²²²⁾²²³⁾
- 검사비용, 응급실 이용 및 긴급치료 비용, 진료소 방문 비용 등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 적용함
 -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기관(Out-of-network)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보장하고,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처방약 부족 시 타 약물 사전승인 규제 완화 등도 권고함
-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의료 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의 보험회사인 Blue Cross 및 Blue Shield of Oklahoma는 가입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청하면, 훈련받은 의료진이 방문하여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DispatchHealth' 서비스를 제공함

221)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4

222) CDI, "Bulletin: COVID-19 Screening and Testing"(<http://www.insurance.ca.gov/0250-insurers/0300-insurers/0200-bulletins/bulletin-notices-commiss-opinion/upload/COVID-19-Screening-and-Testing.pdf>)

223)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3

나. 보험계약자 지원

-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60일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요청함²²⁴⁾²²⁵⁾
 - 2020년 3월 30일, 뉴욕주는 긴급규제를 적용해 생명보험료 납부 최대 90일, 손해 보험료 납부 최대 60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²²⁶⁾
-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와중에 식품, 의약품 및 비상약품 등 필수 비즈니스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²²⁷⁾의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촉구함(2020. 4. 10)²²⁸⁾
 - 개인 자동차보험, 스쿠터 보험 등에 필수 비즈니스의 배달 보장(Delivery Coverage) 추가, 필수 비즈니스 기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적인 피보험자 등록 등을 요청함
- 캘리포니아주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 긴급상황 동안 재정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최소 3, 4월²²⁹⁾ 동안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해 주도록 함(2020. 4. 13)²³⁰⁾
 -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자택대피명령, 기업 강제폐쇄명령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고 또는 손실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UC Davis의 특별보고서²³¹⁾에 따르면, 차량운행량 감소로 인해 고속도로 및 도로에서의 사고, 부상,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음

224) CDI, "Notice: 60-Day Grace Period for Insurance Premium Payments Due to the Disruptio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upload/nr030-BillingGracePeriodNotice03182020.pdf>)

225)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7

226) https://www.dfs.ny.gov/press_releases/pr202003301

227) 배달서비스 근로자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필수 핵심 인프라 근로자(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로 정한 총 16개 분야 근로자에 해당됨

22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7-2020.cfm>

229) 자택 대피 명령(Shelter-in-place)이 연장될 경우 5월분까지 포함함

230)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8-2020.cfm>

231) Special Report on the Impact of COVID-19 on California Traffic Accidents

3. 영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유럽 보험감독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는 코로나19가 가계 및 기업에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EU 보험 분야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발표함²³²⁾
 - EIOPA 각국 금융당국에 2019년에 대한 감독보고(Supervisory Reporting) 및 공개(Public Disclosure)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EIOPA는 정보 요청 및 업계와의 협의를 현재 시장상황의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로 제한함
 - EIOPA는 2020 Solvency II 검토에 대한 전체 영향 평가 마감일을 2020년 6월 1일로 2개월 연장함

나. 보험계약자 지원

- FCA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 소비자 및 보험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함²³³⁾²³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해지를 금지함
 - 여행 및 휴가, 이벤트의 취소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침을 발표함²³⁵⁾

232)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 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33) FCA(2020. 10. 21),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Draft guidance

234) FCA(2020. 10. 30),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Finalised Guidance

235) FCA(2020. 10. 2), "Cancellations and refunds – helping consumers with rights and routes to refunds", Finalised Guidance

- 영국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코로나19 Support Fund’를 출범하고 코로나19 지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음²³⁶⁾
 - 현재 1억 파운드 이상이 모금되었으며 보험산업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8,400만 파운드가 모금되었음
 - 해당 펀드에는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 영국보험중개인협회(BIBA: 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런던시장그룹(LMG: London Market Group), 국제보험언더라이팅협회(IUA: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가 참여함
 - 모금액은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에 지원될 예정임
- FCA는 기업휴지보험과 관련하여 계약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선언을 공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임²³⁷⁾
 -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청구 및 불만사항 처리 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²³⁸⁾ 약 6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 700개의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21가지 유형 중 12가지 유형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²³⁹⁾
- EIOP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19의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를 발행함²⁴⁰⁾
 - 약관내용 확인, 비상상황 시 보험회사 플랜, 사기 주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36) <https://www.covid19support.org.uk/>

237) FCA(2020. 5. 15),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 High Court test case”

238) FCA(2020. 6. 17),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Finalised guidance for firms”, Finalised guidance

239) FCA(2020. 12. 11), “Draft guid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 proving the presence of coronavirus (Covid-19)”

240) EIOPA(2020. 4. 24), “CONSUMER GUIDE: Understand your insurance coverage during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4. 독일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유럽 보험감독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의 조치를 따름²⁴¹⁾

나. 보험계약자 지원

- 독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지원금 지급 또는 구호 기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일의 주요 보험회사인 Allianz, HUK, ADAC 등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²⁴²⁾²⁴³⁾
 - 주행거리가 적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임
 - Gothaer는 운송업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Allianz는 보험 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 Generali Group은 긴급 구호 기금 3천만 유로를 마련하고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해 신용보험회사에 3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건전한 기업이 부도 위기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짐²⁴⁴⁾

241)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242) DHZ(2020. 6. 22), "Warum manche Autofahrer Geld zurück bekommen dank Corona"

243) DHZ(2020. 4. 24), "Corona-Krise: Kfz-Versicherungen wollen Geld erstatten"

244) Euler Hermes(2020. 4. 16), "Covid-19: A protective shield for German companies and suppliers"

5. 일본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 후속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
 - (공시자료 제출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사정으로 기한 내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유가증권보고서, 사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승인하에 제출기한을 연장함
 - (보험회사 핫라인 구축)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질의에 관해 소비자 핫라인 구축을 2020년 2월 28일 요청함
 - (재택근무 요청)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4. 7)에 따라 일부 재택근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²⁴⁵⁾
 - (고용유지 요청)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후속조치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취업 내정자 등의 고용유지를 각 금융단체에 요청함²⁴⁶⁾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면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실시 중임²⁴⁷⁾
 - (보험설계사 소득 보상)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과 후코쿠(富国)생명은 2020년 4월부터 전년도 평균 급여를 보장하고 있음

나. 보험계약자 지원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및 계약 유지가 곤란하므로 업무 간소화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조치를 보험협회에 요청하였으며(3. 13)²⁴⁸⁾ 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자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임²⁴⁹⁾

245)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3)

246)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7)

247) http://www.olis.or.jp/pdf/asia_report0021jp.pdf

248) 金融庁 報道資料(2020. 3. 13)

249) 日本生命保険協會 News Release(2020. 3. 17); 日本損害保険協會 News Release(2020. 4. 6)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연장)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보험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계약갱신기한 연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 갱신기간 도래 등 계약자가 계약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갱신 일자를 조정함
 - 또한 계약 갱신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면 갱신일을 소급하여 절차를 진행함
- (청구 절차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급부금, 해약환급금, 약관대출 신청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서류 간편화를 실시함
- (재택근무, 고용유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휴가 제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금융청(4. 10)에 따라 코로나19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 확대 해석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보험회사는 실정에 맞게 실시 중임²⁵⁰⁾

- (재해사망금 지급) 생명보험업계는 사망보험 등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등이 코로나19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증액형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휴업보상금 지급) 손해보험업계는 휴업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계약자 본인, 종업원, 고객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 여부 공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판매 중인 보험상품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시 보상 확대 및 보상 여부를 공시하고 있음²⁵¹⁾

○ 일본 보험업계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자 지원 대책을 회사 실정에 맞게 실시함²⁵²⁾

- (자택·호텔 요양 시 급부) 생명보험업계는 정부가 숙박시설과 자택 등을 코로나19 무증상·경증자 임시 요양시설로 허용함에 따라 계약자가 의사 진단서 제출시 호텔이나 자택에서 요양할 경우에도 입원 급부금을 지급함²⁵³⁾

250)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News Release(2020. 12. 21)'

25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26690R00C20A5XY0000/?n_cid=SPTMG002

252) 니혼생명(<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hirase/>); 도쿄해상(https://www.tokiomarine-nichic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253) 日本経済新聞(2020. 4. 6), ホテル・自宅療養も入院扱い

- 다만,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하지 못하고 임시시설에서 입원과 동일형태로 요양을 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원한 경우로 한정함
 - (본인 확인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본인 확인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을 실시 중임
 - (원격진료 보상) 정부가 코로나19 원격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화나 인터넷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통원급부금을 지급함²⁵⁴⁾
 - (무이자 약관대출) 정부의 무이자 대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신규로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무이자 약관대출을 제공함
 - (기업 대출상환 조건 완화) 기업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할 기업에게 상환 연장 등 대출 상환 조건 완화를 실시함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마련함²⁵⁵⁾
- (해외여행자보험 자동 연장)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여행에서 귀국 후 호텔 등 시설에서 자동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택으로 귀가 시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함
 - (상해보험금 지급)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험금 청구 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6. 중국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은보감회는 보험회사가 피해 지역, 피해 기업 및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을 권장함²⁵⁶⁾
 - (피해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휴업, 영업시간 조

254) 日本經濟新聞(2020. 5. 4), 生保が新型コロナで特例対応

255) 日本經濟新聞(2020. 4. 26), 新型コロナで旅行キャンセル

256)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을 안내함

- (피해 고객에 대한 보장 제공)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코로나 19 피해를 보상하고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함
 - (방역 관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해 상해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 보험료 감면,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서비스를 강화함
 - (농업 생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업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원격기술을 활용한 비현장 사고 사정 방식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함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보험금 청구 접수채널 개설,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 취소와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증권 생략, 보험금 선지급, 병원비 선결제를 포함하며, 취소된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은 면책기간, 지정병원 이용제한, 자기부담한도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일반 시민에게 온라인진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중국평안보험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굿닥터와 함께 보험회사의 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은보감회는 질병 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 개발을 금지했으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하도록 권고함²⁵⁷⁾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했지만 은보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은보감회의 권고를 고려해 기판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257) 中国政府网(2020. 2), “国务院联防联控机制权威发布(2020年2月15日14时)文字实录”

나. 보험계약자 지원²⁵⁸⁾

- 보험회사는 기판매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 중국 정부는 기본의료보험 및 재정지출로 코로나19의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국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치료비용 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험금, 입원일당의 지급을 제공함
 - 2020년 2월 24일 기준 70개 보험회사는 1,210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보장범위에서 포함시켰음
 -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보장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설정함
-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해 줌
 - 코로나19 직원지인 후베이성 및 확산세가 심각한 저장성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를 해줌
-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 경찰, 기사 및 배달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중국인수생명은 우한시에서 일하는 18만 명의 의료진에게 보험가입금액이 9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며, 양광생명은 우한시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조업 재개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발로 인한 영업중지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개발함²⁵⁹⁾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거나 제공하더라도 코로나19로 비롯한 법정감염병을 보장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신규 개발함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기업보험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새롭게 포함시켰음

258) 国务院(2020. 4), “保险业全面升级疫情理赔服务捐赠专属产品保额逾千亿”

259) 财经网(2020. 4), ““营业中断险”后又推“复工复产险” 国内保险公司如何打算?”

- 저장성 닝보시(宁波市)에서 지방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료의 50%까지 부담해줌

7. 대만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2020년 1월 22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정감염병 대응조치』²⁶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발표함²⁶¹⁾
 - 동 대응조치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0800무료전화 개통, 코로나19 방역 홍보 강화, 보험금 지급 신속 처리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가 보험상품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로금이나 기타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 2020년 2월 21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버해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회사에게 사이버보안 강화를 요구함
 - 채택근무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코로나19 정보로 사칭한 이메일 및 악성프로그램을 주요 위협 대상으로 제시함
 - 또한 2020년 5월 4일 대만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도록 명시함
- 2020년 3월 10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코로나19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감염병의 면책기간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품을 기존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함²⁶²⁾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대료 감면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자산의 인정 기준을 완화함²⁶³⁾

260) 동 규정은 사스가 발생한 이후 2014년에 제정됐으며 보험회사의 법정감염병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261)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1), “金管會督導保險業啟動因應法定傳染病相關應變措施事宜”

262)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金管會就保險業者針對「嚴重特殊傳染性肺炎」推出縮短或取消等待期間醫療保險商品之說明”

263)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衝擊, 金管會近期將發布「保險業辦理不動產投資有關即時利用並有收益之認定標準及處理原則」之相關暫行措施”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수익률이 부동산 자산 인정 기준에 미달해도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나. 보험계약자 지원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유예,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처리와 같은 보험서비스를 공시하도록 요구함²⁶⁴⁾
 - 또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대다수 보험회사는 기관매 보험상품의 약관을 수정하여 면책조항을 취소함²⁶⁵⁾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함²⁶⁶⁾
 - 푸본생명(푸본생명)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고, 신광생명(신광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장기 입원 시 생활보조금, 중환자실 입원 시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대만생명(대만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일부 보험회사는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및 확진자를 보상하는 개인손해배상보험 신상품을 개발함
 - 푸본손보(푸본손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²⁶⁷⁾
 - 대만산물손보(대만산물손보)가 개발한 상품은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및 최고 보장한도는 각각 500대만 달러, 10만 대만 달러임²⁶⁸⁾
 - 대만산물손보(대만산물손보)가 판매한 상품은 확진자가 아닌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함

264)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金管會保險局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防疫措施專區, 專區說明”

265) 好險在這裏(2020. 3), “69種法定傳染病可免等待期, 武漢肺炎保單已上市”

266) 富邦人壽(2020. 3), “富邦人壽推全台首張法定傳染病定期健康險「金」放心”; 新光人壽(2020. 4), “新壽推「活力罩」醫療險 防疫有保障”; 台灣人壽(2020. 4), “全民抗疫·台灣人壽推「安心365」防疫保單上市”

267) 富邦產險(2020. 4), “富邦產險推出業界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民眾若因法定傳染病須進行居家隔離將可獲得保障!”

268) 工商時報(2020. 12), “臺灣產險 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 2021년 1월 25일 대만산물손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일부러 방문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발생 우려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함²⁶⁹⁾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함

- 남산(南山)손보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최고 60만 대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함²⁷⁰⁾
- 대만산물손보는 영업손실비용,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법정감염병 격리 대상자 및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 및 영업장소 소득비용을 보장함²⁷¹⁾

8. 호주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호주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 및 영구장애(TPD: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보험금 청구에 관한 지원책을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²⁷²⁾

- 의료종사자가 생명보험에 가입 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잠재적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영구장애(TPD)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되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장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 31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이뤄져야 함

○ 호주의 보험 청구 전문 에이전트인 Gallagher Bassett(GB)는 영상기술 활용을 통해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있음²⁷³⁾

- 동사는 WebEx, FaceTime, Zoom을 비롯한 다양한 원격 기술을 통해 보험 계약

269) 現代保險(2021. 1), “「防疫保單」為什麼停售? 保險局、學者這樣看!”

270) 南山產物(2020. 3), “中小企業主的戰「疫」護盾! 南山產物推「金防疫」專案”

271) 經濟日報(2020. 11), “臺灣產物保險秋冬防疫專案 提供企業四大保障”

272) FSC(2020. 7. 27), Media Release, “Life Insurance Covid Initiatives extended”

273) <https://www.insurancebusinessmag.com/au/news/breaking-news/gallagher-bassett-responds-to-covid19-219258.aspx>

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영상을 통해 손실을 측정하고 있음

- 고용인 지시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부상에 대해서도 근로자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을 신청할 수 있음²⁷⁴⁾
 - 가계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포함하지 않으나 많은 호주인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사들 또한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

나. 보험계약자 지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항소법원은 기업활동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시범케이스(Test case)에서 판결을 내림²⁷⁵⁾
 - 항소 법원은 보험금 면제 조항에서 설명하는 '검역법'이 코로나19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법 면제 조항으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피보험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됨
 - IAG의 경우 기업휴직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7억 5,000만 호주달러를 준비 중인 상황임
- NRMA Insurance, CGU, WFI, SGIO, SGIC 보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호주 최대 보험사인 IAG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함²⁷⁶⁾
 - 이행되지 않은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 보험 취소 시 관리비 또는 취소 수수료 없이 보험료 전액을 환불함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연기함
 - 보험 상품을 취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 차감없이 보험료 미사용분을 환불함

274)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issues-submissions/covid-19>

275)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4669&Type=eDaily>

276) <https://www.iag.com.au/how-were-helping-our-customers-during-covid-19>

- 코로나19로 건물을 폐쇄하는 소기업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 가능함
- 이 밖에도 IGA는 직원의 9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고객서비스 부분에 최대 400명의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어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

9. 싱가포르

가. 보험서비스 연속성

○ 2020년 9월 1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위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였고,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1차 지원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조치를 취함²⁷⁷⁾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기 혹은 상품 갱신 시기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연기가 가능함
- 보험료 납부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유예(DPP: Deferred Premium Payment)에 관한 다음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 ① 3개월 분할 납입
 - ② 보험료 납입 유예(DPP) 3개월 추가 연장
 - ③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옵션(예: 보험료 자동대출납입,²⁷⁸⁾ 감액완납 등) 중 선택

나. 보험계약자 지원

277) https://www.lia.org.sg/media/2661/20200918_lia-media-release_further-initiatives-to-assist-policyholders_for-covid-19.pdf

278)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는 2020년 9월 18일 보험계약자가 유연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함
 - 지원 방법은 각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며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환자가 치료시설인 CCF(Community Care Facility) 또는 CRF(Community Recovery Facility)로 이송될 경우 최대 14일간 현금 보장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함²⁷⁹⁾
 - CCF 또는 CRF 시설 입원은 환자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따라서 현금 지원은 병원 입원 중 발생한 비용과 별도로 추가 지원됨
- AIG Asia Pacific Insurance, Chubb Insurance Singapore, HL Assurance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및 입원 비용에 대해 최소 30,000싱가포르 달러를 보장하는 여행 보험 상품을 개발함²⁸⁰⁾
 - 이 같은 여행 보험 상품은 싱가포르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싱가포르 차이공항그룹 및 싱가포르 관광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됨
 - 싱가포르 보건부는 싱가포르 내륙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립 병원 청구서 기준 치료 비용이 최소 30,000싱가포르 달러가 부과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동 여행 보험 상품은 이들 보험사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소 5.35싱가포르 달러임

279) https://www.lia.org.sg/media/2550/200505_lia-gia-release_extend-daily-hospital-cash-benefit-cover.pdf

280) <https://www.stb.gov.sg/content/stb/en/media-centre/media-releases/New-insurance-coverage-for-inbound-travellers-to-cover-Covid-19-related-costs-in-Singapore.html>

10. 소결

-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의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요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완화함
 - 보험계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 휴가 및 이벤트의 취소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 코로나19가 보험약관상 보험금·급부 지급 사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관을 확대 해석하거나 상품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각 보험협회에 요청하기도 함
 -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험처리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주요국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국의 보험시장 상황에 맞게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함
-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대만,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함
 - 그러나 중국은 경험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신상품 개발을 금지함
 - 신상품에 대한 역선택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신상품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음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2020. 5. 20), 「일본, 추가 경제대책 및 2차 추경 예산안 발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 윤성훈(2021),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中国国家统计局(2020. 10), “前三季度经济增长由负转正”
_____ (2020. 10), “2020年1—9月份全国固定资产投资(不含农户)增长0.8%”
_____ (2020. 4), “2020年一季度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_____ (2021. 1), “2020年四季度和全年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 中国经济体制改革研究会(2020. 4), “智库专家:一季度中国经济损失约3万亿元”
-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 “银保监会·人民银行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
财政部联合发布《关于对中小微企业贷款实施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通知》”
_____ (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_____ (2020. 2), “中国人民银行·财政部·银保监会·证监会·外汇局
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
_____ (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 中華民國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2021. 2), “109年1~12月壽險業績統計”
- 台灣行政院主計總處(2021. 1), “109年第4季經濟成長率概估統計saar為7.77%, yoy為4.9
4%, 全年成長2.98%”
_____ (2020. 11), “109年第3季經濟成長率 3.92%”
_____ (2020. 10), “109年第3季工業生產成長5.6%”
_____ (2020. 10), “109年第3季零售業營業額增4.6%”
_____ (2020. 10), “109年1-9月出、進口值分別增2.4%及減0.7%”
_____ (2020. 10), “109年9月失業率為3.83%”

- _____ (2020. 7), “109年第2季工業生產成長4.4%”
- _____ (2020. 7), “109年第2季零售業營業額減5.8%”
- _____ (2020. 7), “109年1-6月出、進口值分別增0.5%及減0.4%”
- _____ (2020. 7), “概估109年第2季經濟成長率-0.73%”
- _____ (2020. 5), “109年第1季經濟成長率1.59%”
- _____ (2020. 4), “109年第1季零售業營業額減0.6%”
- _____ (2020. 4), “109年1-3月出、進口值分別增3.7%及3.5%”
- _____ (2020. 1), “109年第1季工業生產成長8.9%”
-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管會保險局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防疫措施專區, 金管會新聞稿及重要函文”
- _____ (2020. 5), “個人受疫情衝擊者貸款至年底前可申請展延”
- _____ (2020. 4), “金管會說明小規模營業人貸款的特色”
- _____ (2020. 4), “109年5月13日公告, 為防治控制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所需, 進入保險公司營業場所, 應配合實施量測體溫並應佩戴口罩, 倘有體溫過高情形或未佩戴口罩者, 不得進入。”
- _____ (2020. 4), “為防疫所需, 自4月20日起進入銀行營業場所, 倘有體溫過高情形或未配戴口罩者, 不得進入”;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5), “為防治控制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所需, 進入保險公司營業場所, 應配合實施量測體溫並應佩戴口罩, 倘有體溫過高情形或未佩戴口罩者, 不得進入”
- _____ (2020. 4), “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衝擊, 金管會近期將發布「保險業辦理不動產投資有關即時利用並有收益之認定標準及處理原則」之相關暫行措施”
- _____ (2020. 4), “金管會保險局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防疫措施專區, 專區說明”
- _____ (2020. 3), “金管會就保險業者針對「嚴重特殊傳染性肺炎」推出縮短或取消等待期間醫療保險商品之說明”
- _____ (2020. 3), “109年3月18日函請周邊單位及保險相關公會轉知所屬會員, 各機構人員自即日起至嚴重特殊傳染性肺炎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解散之日止, 平日、假

日 出國均應明確填報或使所屬機構知悉所前往國家、地區(含轉機)”

_____ (2020. 3), “109年3月25日函請保險相關公會轉知所屬會員, 將中央流行
疫情指揮中心宣布即日起, 室內超過100人以上、室外超過500人以上的公眾集會活動
建議停辦, 以減低社區感染的風險”

_____ (2020. 3), “保險公司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提供之保戶服務相關便
民措施網址及服務專線彙總表”

_____ (2020. 2), “請周邊單位加強防疫措施以達營運不中斷目的”

_____ (2020. 1), “金管會督導保險業啟動因應法定傳染病相關應變措施事宜”

金融監督管理委員會保險局(2021. 2), “109年11月保險市場重要指標”

_____ (2021. 1), “109年12月保險業損益、淨值, 以及兌換損益、避險損益
與外匯價格變動準備金情形”

行政院(2020. 5), “雨露均霑擴大紓困 蘇揆: 補助工作無加保者及農漁民”

_____ (2020. 4),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口罩販售實名制2月6日上路, 民眾可持健保卡購買”

經濟部(2020. 1), “公告自109年1月24日起至109年2月23日止CCC6307.90.50.10-6「紡織材
料製口罩, 過濾效果94%及以上者」及CCC6307.90.50.20-4 「其他紡織材料製口罩」2
項貨品增列輸出規定代號「111」, 並列入「限制輸出貨品表」”

富邦人壽(2020. 3), “富邦人壽推全台首張法定傳染病定期健康險「金」放心”

新光人壽(2020. 4), “新壽推「活力罩」醫療險 防疫有保障”

台灣人壽(2020. 4), “全民抗疫·台灣人壽推「安心365」防疫保單上市”

富邦產險(2020. 4), “富邦產險推出業界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民眾若因法定傳染病須進行居
家隔離將可獲得保障!”

_____ (2020. 3), “落實政府防疫措施 富邦產險率先推出「企業防疫薪資費用保險」減輕小
型企業薪資負擔、維護員工受薪權益”

南山產物(2020. 3), “中小企業主的戰「疫」護盾! 南山產物推「金防疫」專案”

國泰人壽,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南山人
壽, 新聞中心, 保戶關懷及房貸紓困雙管齊下 南山人壽挺保戶和醫護 全面擴大適用對象

_____,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ABI(2020. 7), “Helping customers, citizens and charities-Insurer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A.M. Best(2020. 6), “Best’s Market Segment Report: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 & O Industry”

BaFin(2020. 7. 15), “BaFin adapts requirements to the crisis”

_____(Lastest updated 2020. 10. 12), “Covid-19 situation: BaFin information on new developments and key points”

BBC(2020. 12. 22), “Covid-19: More than 40 countries ban UK arrivals”

_____(2020. 12. 16), “Covid-19: Germany introduces new restrictions amid rise in cases”

Bird&Bird(2020. 3), “COVID-19 Update Germany: Law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stock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ransformations to protect companies from the effects of the current corona crisis has come into force”

Bloomberg(2021. 2. 8), “U.K. Plans Annual Vaccinations to Fight New Coronavirus Strains”

_____(2021. 2. 6), “German Lockdown Likely to Be Extended Until End of February”

bundesregierung(2020. 11. 25),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Federal Chancellor and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CCIG(2020. 10), “COVID-19 and Its Impact on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CDI, “Bulletin: COVID-19 Screening and Testing”

_____, “Notice: 60-Day Grace Period for Insurance Premium Payments Due to the Disruptio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CISION(2020. 9), “Car insurance prices rise despite COVID-19 relief measures, according to new report from LowestRates.ca”

CNN(2020. 12. 21), “Canada the latest country to halt travel from UK over new

Covid-19 variant concerns”

Deloitte(2020), “Market implications of COVID-19 for UK life insurers”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3~7

DW(2021. 1. 11), “Coronavirus: Germany's stricter lockdown starts nationwide”

____(2020. 7. 22), “Coronavirus: How Germany’s economy would cope with a second wave”

EIOPA(2020. 10. 7), “EIOPA sets up its key priorities in the light of the pandemic”

____(2020. 4. 24), “CONSUMER GUIDE: Understand your insurance coverage during Coronavirus/COVID-19 Outbreak”

____(2020. 4. 2), “Call to action for insurers and intermediarie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consumers”

____(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 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ESMA(2020. 8. 28), “ESMA PROPOSES TO FURTHER POSTPONE CSDR SETTLEMENT DISCIPLINE”

____(2020. 7. 21), “ESMA RECOMMENDS SUPERVISORY COORDINATION ON ACCOUNTING FOR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EY(2020. 6), “UK motor insurance market to return to profit in 2020 due to lockdown impact - but likely short term blip”

FCA(2021. 1. 15), “Supreme Court judgment in FCA’s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____(2020. 12. 11), “Draft guid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 proving the presence of coronavirus (Covid-19)”

____(2020. 10. 30),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Finalised Guidance

____(2020. 10. 21),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additional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Draft guidance

____(2020. 10. 2), “Cancellations and refunds - helping consumers with rights and routes to refunds”, Finalised Guidance

____(2020. 8. 4), “listed companies and recapitalisation issuance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Statement of Policy

____(2020. 7. 24), “Coronavirus and customers in temporary financial difficulty: updated guidance for insurance and premium finance firms”, Draft guidance

____(2020. 6. 17),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Finalised guidance for firms”, Finalised guidanc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A stimulus package for everyone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2020. 8. 4), “Coronavirus (SARS-CoV-2): Questions relating to labour law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Feldman & Feldman(2020. 6), “How COVID-19 Can Impact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Fitch(2020. 10), “COVID-19 to drive near term D&O losses”

Fitch Ratings(2021. 2. 2), “German Non-Life Insurance Dashboard: 2021 Outlook”

_____(2021. 1. 29), “German Life Insurance Dashboard: 2021 Outlook”

_____(2021. 1. 27), “What’s Ahead for European Health Insurance: Germany”

_____(2021. 1. 14), “UK Non-Life Company Market Insurance Dashboard: 2021 Outlook”

_____(2020. 11. 26), “Fitch Ratings Maintains Stable German Non-Life Insurance Sector Outlook”

Forbes(2020. 5. 13), “GLOBAL 2000”

FRC(2020. 4. 1), “Pre-Emption Group expectations for issuances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GlobeNewswire(2020. 12), “COVID-19’s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Will Continue Well into 2021”

GOV.UK(2020. 12. 21), “Get help with technology during coronavirus (COVID-19)”

_____ (2020. 10. 14), “The impacts of COVID-19 on the insurance industry”

_____ (Last updated 2020. 12. 19), “Full list of local restriction tiers by area”

HM Treasury(2020. 9), “Winter Economy Plan”

Hub(2020), “Impacts of COVID-19 on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Coverages”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_____ (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III(2020. 11), “Covid-19: Impact on Auto Insurance”

IMF(2020. 10),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Insurance Business(2020. 9), “COVID-19’s impact on the auto insurance industry and its clientele”

_____ (2020. 8), “Personal, commercial auto insurers should expect steady declines in premiums written - Deloitte”

Insurance Journal(2020. 5), “How Coronavirus Has Affected Auto Insurance Shopping”

Integrationsbeauftragte(2020. 11. 25),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Federal Chancellor and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Interpol(2020. 4), “Global Landscape on COVID-19 Cyberthreat”

Intetics(2020. 10. 27), “COVID-19 impact on the UK insurance industry: how to keep your insurance business going”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20”

James Rundle(2020. 5. 18), “Cyber Insurers Get Tough on Risk Assessments Amid Coronavirus Pandemic”, *Wall Street Journal*

Jones Day(2020. 9), “COVID-19 Raises Various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Considerations”

Josh Cunningham(2020. 12. 9), “COVID-19: Workers’ Compensation”,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LIMRA(2020),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Annualized Premium Growth Forecast”

Marsh(2020. 6), “COVID-19 Pandemic Adds to Rate Pressure for D&O Buyers”

Marsh&McLennan Companies(2020. 4), “COVID-19: What the Pandemic Means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s”

Moody’s(2020. 11. 3), “Moody’s - Outlook for German life insurers is negative, as weak economic growth and low rates to have a lasting impact”

New Europe(2021. 1. 12), “Germany likely to remain in lockdown until April”

OBR(2020. 11. 25),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0”

OECD(2020), “Insurance Sector Response to COVID-19 by Governments, Supervisors and Industry”

PropertyCasualty360(2020. 8), “A hard D&O market has new meaning in the COVID-19 era”

pwc(2020. 9), “UK Economic Update”

Statistisches Bundesamt(2020. 11. 24), “Gross domestic product: detailed result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3rd quarter of 2020”

Swiss Re(2020. 7. 9), “World insurance: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 No 4/2020

UK Parliament(2020. 12. 21), “Coronavirus: Economic impact”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Winters(2020), “Swiss Re, Zurich Insurance in Talks with Swiss Regulator About Coronavirus Impact”, *Insurance Journal*

ABI(<https://www.abi.org.uk/>)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https://www.actuary.org/>)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https://www.abs.gov.au/>)

Australian Government Business(<https://business.gov.a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https://www.health.gov.au/>)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https://www.apra.gov.au/>)
BEA(<https://www.bea.gov/>)
BMFSFJ(<https://www.bmfsfj.de/bmfsfj>)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http://www.insurance.ca.gov/>)
CDC(<https://www.cdc.gov/>)
Cigna(<https://www.cigna.com/>)
Congress(<https://www.congress.gov/>)
Covid19 Support(<https://www.covid19support.org.uk/>)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https://www.singstat.gov.sg>)
FCA(<https://www.fca.org.uk/>)
FDIC(<https://www.fdic.gov/>)
Financial Service Council(<https://www.fsc.org.au/>)
Gov.sg(<https://www.gov.sg/>)
IAG(<https://www.iag.com.au/>)
Insurance Business Australia(<https://www.insurancebusinessmag.com/au/>)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https://www.insurancecouncil.com.au/>)
Insurance Journal(<https://www.insurancejournal.com/>)
Life Insurance Association Singapore(<https://www.lia.org.sg/>)
LIMRA(<https://www.limra.com/>)
London Stock Exchange(<https://www.londonstockexchange.com/>)
Ministry of Health Singapore(<https://www.moh.gov.sg>)
Ministry of Manpower(<https://www.mom.gov.sg/>)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https://www.msf.gov.sg/Pages/default.aspx>)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mas.gov.sg/>)
Moneysmart(<https://moneysmart.gov.au/>)
NCUA(<https://www.ncua.gov/>)
NHK(<https://www.nhk.or.jp/>)

Nikkei(<https://www.nikkei.com/>)

NISSAY(<https://www.nissay.co.jp/>)

NY(<https://www.ny.gov/>)

OECD(<http://www.oecd.org/>)

SEC(<https://www.sec.gov/>)

Singapore Tourism Board(<https://www.stb.gov.sg/content/stb/en.html>)

Support GoWhere(<https://support.gowhere.gov.sg/>)

Tokio Marine(<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

UK(<https://www.gov.uk/>)

WHO(<https://www.who.int/>)

<https://www.actuary.org/sites/default/files/2020-11/COVID-19-Combined.pdf>

[https://www.oecd.org/finance/Initial-assessment-of-insurance-coverage-and-gaps-f
or-tackling-COVID-19-impacts.pdf](https://www.oecd.org/finance/Initial-assessment-of-insurance-coverage-and-gaps-f
or-tackling-COVID-19-impacts.pdf) p.8

http://www.olis.or.jp/pdf/asia_report0021jp.pdf

https://www.zenginkyo.or.jp/fileadmin/res/topic/covid19/covid19_leaf.pdf

Special Report on the Impact of COVID-19 on California Traffic Accidents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김석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이상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손민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연구원
E-mail : sms27@kiri.or.kr

장윤미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nmi.jang@kiri.or.kr

손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jyson@kiri.or.kr

이슈보고서 2021-05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42-6
979-11-89741-37-2(세트)